

은빛

한국학 큰 즐거이에
'호남학'의 길을 여는



2023년 9월
창간호



허달재 작 <서석> 1990, 한지에 수묵담채,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다산의 시 '登瑞石山' 배경

화순현감인 부친을 따라 화순에 머물던 1778년, 다산(17세)의 4형제는 함께 무등산 유람을 다녀왔고, 다산은 그 여정과 감흥을 담은 유람기와 시를 남겼다. 이 유람은 4형제가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었다.

登瑞石山 서석산에 올라

丁若鏞 (정약용 1762~1836)

瑞石衆所仰 서석산은 못사람 우러르는 곳
 屢屨有古雪 높이 솟아 해묵은 눈이 아직 남아
 不改渾沌形 태곳적의 모습 고치지 않고
 眞積致峻巖 알차게 쌓고 쌓아 우뚝하네

諸山騁纖巧 주위의 여러 산은 정교하고
 刻削露骨節 깎고 새겨 뼈마디가 드러나
 將登邈無階 올라오려 할 때는 층계가 없더니
 及遠知卑列 높이 오르자 산하가 낮음을 알겠네

僻行曠易顯 모난 행동 간단히 드러나지만
 至德闇難別 지극한 덕 덮여 분별이 어려우나
 愛茲磅礴質 사랑스러운 이 산의 총만한 본질
 涵蓄靳一洩 고스란히 머금어 빈틈이 없네

雷雨不受鑿 천둥과 폭우에도 깎이지 않아
 謹保天所設 조물주 만든 그대로이니
 自然有雲霧 자연히 구름안개 피어나
 時滄下土熱 이따금 땅의 열기 내려 주네

한국학 큰 줄기에
‘호남학’의 길을 열다

‘온빛’ 창간호
(통권 1호)/연간

발행일 2023년 9월 22일
창간일 2023년 9월 22일
발행처 한국학호남진흥원
발행인 천득엽
기획·편집 조미은, 엄찬영
교정·교열 김서영, 박은빈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소촌동)
전화 062-603-9600
누리집 www.hiks.or.kr
디자인·제작 엔터
표지 멧글씨 강병인



표지 사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 명원
소쇄원의 '제월당'.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지의 제호 '온빛'에
'온전한 호남학 연구로 빛나는 미래를 열겠다'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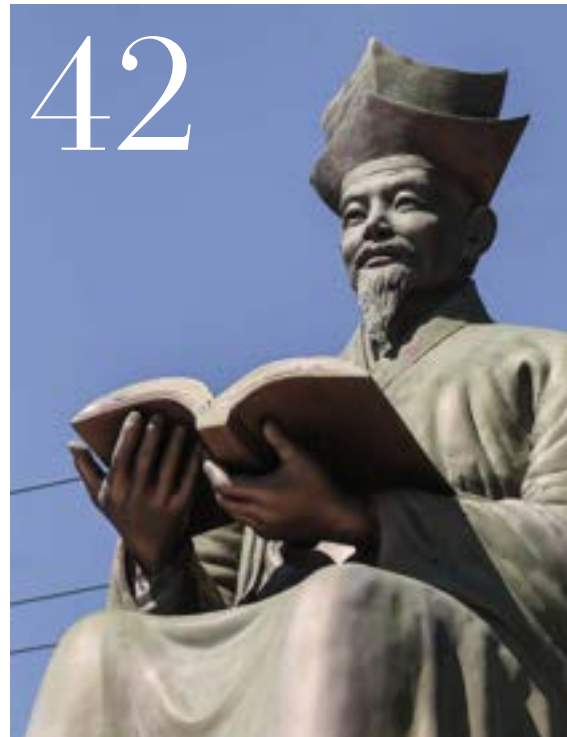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온빛'과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례

- 2 '온빛'을 여는 시와 그림
登瑞石山 서석산에 올라 - 정약용
- 6 발간사
호남학의 '온빛'을 누리에 펼칩니다
- 8 발간 축하글
호남 앞길 비추는 '지혜의 빛' 소망합니다
호남 기록 문화유산, 널리 소통하는 창구 기대
- 10 '온빛' 창간에 거는 호남인의 기대
호남학은 물음이고 답입니다
- 12 창간 특집
한국학 큰 줄기에 '호남학'의 길을 열다
- 14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6년 성과
- 20 한국학호남진흥원 국역 사업
- 24 한국학호남진흥원 기증·기탁 사업
- 28 기증·기탁 자료의 보존처리



12



30 기증·기탁 화제
행주 기씨 문헌공 종중의 뜻깊은 기탁

32 행주 기씨 기탁 고문헌
고봉이 퇴계에게 보낸 친필 시

34 고문헌 기탁 문종과 만남
고문헌 첫 번째 기탁 문종,
행주 기씨 금강 문종 후손 기호철 씨

38 사료 돌아보기
임금의 명으로 관원을 부르다 '패초牌招'

42 선인의 지혜
실학 교육을 가숙에서부터 실천하고자 주창한 위백규

46 온빛 논단
호남, 호남인

46 호남학을 찾아서

50 호남의 정신사와 비판적 지식인들



54 온빛 소식 - 문화재 지정
혜손·멸실 위기 민간 기록 유산, 지정 문화재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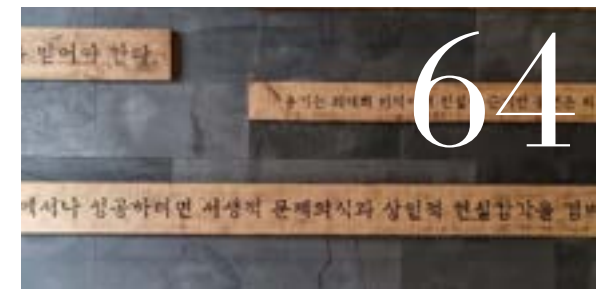
56 새 연구 설계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 연구
호남 서화 연구

60 호남학 공간-한국학호남진흥원 향토사자료실
향토사가와 연구자들 손때 묻은 귀한 자료

64 호남학 산책-풍경의 기억
미래를 내다본 리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

68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
서적·간행물·자료집
강연회·콜로키움·학술대회
2023 상반기 행사

71 함께하는 호남학 연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





발간사

호남학의 ‘온빛’을 누리에 펼칩니다



2017년 9월 태어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우리의 가치와 정보를 전할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합니다. 소식지의 이름은 ‘온빛’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호남 지역을 아우르는 의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소식지 ‘온빛’은 호남한국학 분야를 포괄하는 이야기와 소식을 모아 관심 있는 분들께 두루 전달될 것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 한국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 조사·수집·보존·정리 및 학술 연구를 통하여 호남권 한국학 분야의 진흥을 책임지며, 호남인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범한 지 6년여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6만 5천 점 이상의 고문헌 자료와 2만

우리를 더 알아가고 정리하며 성찰하여
내일을 준비하자는 의지로
소식지 ‘온빛’의 창간호를 이 세상에 내놓습니다.

3천 점 이상의 향토사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80여 권의 저술·출판도 이뤄졌습니다.

문헌 연구 성과로는 2022년 호남 문헌 『답문류편』·『서행록』 등 4종의 문헌 자료를 국역하였으며, 향약 자료집 2권을 발행하였고, 호남한국학 종합DB 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후창집』·『일신재집』·『농포집』을 완역 출간하고 심층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역사 인물 선양을 위해 호남 의병사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연구 중이며 호남학 저변 확대를 위해 호남학 콜로키움과 남도 정신문화 강연회, 호남한국학 열린강좌 등을 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남학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 호남한국학 연구 총서 출판,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롭게 호남학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일기 자료, 누정과 원림, 금석문, 시권(試卷) 등 4개 분야의 신규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헌 사료의 지평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더 알아가고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자는 의지로 소식지 ‘온빛’을 이 세상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면모가 고스란히 기억되고 평가될 것이기에 더욱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의미와 가치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2023년 9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발간 축하글

호남 앞길 비추는 '지혜의 빛' 소망합니다



은 호남의 빛이 되어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소식지 창간호 '온빛' 발간을 2백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남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계시며, 소식지 발간에 힘써 주신 천득엽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온 호남은 예로부터 충의와 효열의 고장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끌어오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께서는 이러한 호남의 용맹스러운 기개를 높이 평가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호남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인 2018년,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호남의 문헌 및 자료 조사, 정리, 편찬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호남인의 자긍심 제고에 앞장서며 민족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에 힘써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소식지에는 이러한 값진 결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흥원의 연구 활동을 비롯해 호남학 연구의 큰 열개와 호남학의 현재·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학계 동향과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 찬란한 문화를 기반으로 호남은 이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온빛'이 호남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추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소식지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더 큰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사장·전라남도지사
김영록



발간 축하글

호남 기록 문화유산 널리 소통하는 창구 기대



관주위보(貫珠爲寶)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구슬이라도 꺾어야 보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고문헌 분야의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호남권 고문헌 자료의 기증·기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기록 문화유산을 엮어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 주신 천득엽 원장님과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남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남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밝혀주는 일입니다. 또한 호남인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여러분이 더 쉽게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보다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온빛' 소식지가 발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지 '온빛'을 통해 지역 역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빛'이 호남의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의 마중물이 되고 남도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에게는 선물과 같은 소식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온빛'을 통해 호남의 역사와 문화 기록 유산이 알알이 꺾여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발간을 축하합니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호남학은 물음이고 답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강정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학은 지역을 바탕으로 살아온 삶의 어제와 오늘이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 이 물음과 답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습에 머무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에 생각들을 모으고, 협동 하고자, 그 일에 도움이 되고자 소식지를 내는 것일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할까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노예처럼 고달팠으며 어떤 때에 사람답게 살았던가 알아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생각하며 살아야지요, 우리가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않고 제 발로 서야 합니다. 바깥에 눈을 돌려 비교하지 말고 나를 보는 눈을 찾아야 합니다. 거짓과 불평등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드러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삶을 더욱 살 만하게, 더욱 평등하게, 더욱 공정하게 하며, 사람들이 모두 이웃의 존엄을 지키고 이웃의 존엄을 높이며 함께 사는 삶을 일구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그렇게 살자고 부추기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자본의 행태, 자본과 노동의 갈등, 불평등, 민주주의의 파괴, 권력의 오남용 등등 모든 부분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은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밝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지금처럼 불평등과 폭력이 만연하고, 이기심에 찬 사회가 되었는가. 무책임과 뻔뻔함이 왜 이처럼 일반화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공부하여 밝혀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재산과 권력·권한이 골고루 나뉘어 살고, 다양함을 인정, 존중하고 산 사회에서는 인권·문화·경제·정치가 발전하고 번성하였으며, 이런 때는 사람이 그리고 자연이 편안하게 숨쉬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고 싶은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이릴 수 있고, 서로 돕고, 속임 없이 만나고 나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그릇된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이웃과 갈라져 싸우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그렇게 산 경험이 있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개인의 종교적 신앙, 이념의 다름을 가리지 않고 살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등하다고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당한 힘에 의해 꺾였지만 그 뜻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주민이다.” “평등하다.” “억누르지 말라.”를 외치며 산 기개가 장하였습니다.

나만 부자가 되면 좋은가? 힘만 세면 좋은가? 무기가 많은 땅을 바라는가? 이방인을 미워하고 울타리를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가? 이웃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려는가? 참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의 깊이는 어디쯤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물음들을 던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금번에 창간하는 소식지 '온빛'이 이처럼 의미있고 가치가 큰 책무를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학 큰 즐거이에 '호남학'의 길을 열다





‘호남 국학 정립’ 소망 안고 출발 수집·연구·국역·소통의 발걸음 6년

조미은 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장

◆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이듬해인 4월 6일에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현판을 내걸고 첫출발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식(위)과 현판

호남권역 국학기관으로 문을 열다

2017년 9월 22일, 호남 지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마침내 설립되었다. 호남학 연구와 한국학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와 상생 협력하여 공동 설립을 추진한 결과였다.*

호남인의 애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나날이 성장해 온 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수집·보존·연구·진흥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은 진흥원은 명실상부한 국학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급격한 산업화로 전통문화가 거의 사라졌고, 이를 계승할 주체와 보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전통공간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죽은 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와 함께 인구 감소라는 사회문제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소멸 위기에 처한 수많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지역민과 공유하는 것도 본원의 주요한 역할이다. 말하자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에 널리 알리는 등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호남학 연구와 국학 진흥의 새로운 허브가 되다

호남 국학 정립을 위한 희망을 품고 내디딘 발걸음. 그 수년여의 시간을 풀어놓자니 마음이 문득, 뜨거워진다. 그간 진흥원은 국학 자료 수집, 보존, 연구, 교육, 활용 등 근간이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예컨대 6만여 점에 해당하는 기록 문화 유산 자료를 최적의 보존 환경에서 관리하고 상세 해제, 국역 등과 같은 자료를 집적함으로써 국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 고문서 영인본, 기탁 자료 해제집, 호남문헌 국역서 등과 같은 자료집과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가령, 호남 지역의 기록 문화 유산 중에는 향약 및 동계가 있다. 이는 공동체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인데, 진흥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조사한 내용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공유하였다. 이 『향약자료집성』에는 복원해야 할 선조들의 지혜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오롯이 스며들어 있다. 이 외에 호남의 정체성과 그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고문서, 문집, 일기, 금석문, 시권 등에 대한 국역서 간행도 추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원형 콘텐츠를 발굴·활용하고 그 토대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기초 연구 자료로 집적된 국역 자료는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공유하고 있다. 국역 분야에서는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국역 전문 인력까지 투입하여 국역물의 질적 제고에 만반을 기하였다. 이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고문헌들을 발굴, 수집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펴왔다.



연계하여 국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학문 후속 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진흥원은 다양한 콘텐츠로 축적한 역사 문화 자원을 디지털이카 이빙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호남국학종합DB구축’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연구의 결과물인 원문 텍스트, 원문 이미지, 상세 해제, 번역 등과 같은 기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자료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페이지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 소통하며 성장의 나래를 펴다

진흥원은 현재 인재 양성 및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성된 전문 인력들은 국학 자료 연구에 참여하여, 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단체와 연구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호남학 연구와 진흥원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 2022년 11월, 호남학을 연구하는 여러 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호남학 연구기관 협의회를 발족, 제1차 호남학 연구 포럼 학술행사를 열었다. 추후에도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법을 찾고 논의 과정을 통해 선순환적인 학술교류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필자가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호남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책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외적으로 진흥원은 2020년부터 한국국학진흥원(영남권), 한국학호남진흥원(호남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권), 율곡연구원(강원권) 등 권역별 대표 국학기관이 국학진흥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법률안 마련, 민간 기록문화 통합 플랫폼 서비스 구축, 협의회 홍보영상 제작 등 권역별 국학기관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5주년 행사



자료 기탁 협의



2022년 국학자료 제8회 기증-기탁식



학술대회는 성과를 공유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귀한 자리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우리의 걸음은 계속된다

지금껏 진흥원은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설립 목적과 임무에 충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주변 기관 및 타 지역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범할 때보다 약 세 배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모두 지역민의 관심과 뜨거운 응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첫걸음에 묵묵히 동행해 주신 기증기탁자, 연구자 및 유관 기관 등의 숨은 노력도 잊을 수 없다. 하여, 지역의 역사와 미래, 더 나아가 한국학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전진할 것이다. 물론 미래를 향한 여정이 험난할 것이며, 그 파고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각각의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소통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국학기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고려하여 국학의 진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의미한 역사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여 일반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 예컨대 향후에는 향약 및 동계, 호남서화, 누정·원림, 일기, 금석문 등에 대하여 좀 더 의미미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그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청사를 속히 건립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수장고를 확보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책무가 수행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호남학 연구와 진흥을 위해 지난했던 시간을 함께하며 고뇌했던 연구자들에게 박수를, 오늘도 미래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



한문의 벽 높았던 호남 문헌 생생한 오늘의 언어로 재탄생

나상필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호남 문헌, 번역이 왜 필요한가?

‘번역’이란 텍스트의 문맥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역사 현실의 맥락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그중 한문 텍스트는 서사법(書寫法)의 특성상 전고(典故)를 많이 사용하므로 내용을 분석하여 문맥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는 특히 언어생활이 번역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상, 문화, 역사 등의 결과물을 한문으로 옮겨 기록하였다. 중국, 일본 등 타국의 문화는 한문을 번역함으로써 수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번역이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우리나라 언어생활은 한문의 번역과 한문으로의 번역이 공존하였던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번역에 의존한 채 언어생활을 향유하였으니, 이러한 실재는 현존하는 호남 문헌을 비롯하여 많은 기록문화유산이 잘 대변한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우리의

유산이 한문이란 언어 때문에 현대인에게 소통의 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번역이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의 말과 글을 현대화함으로써,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번역은 일상 수준을 넘어 학문과 지식의 교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 고전의 번역은 시공간의 제약을 뚫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울림이 있다.

국역 및 편찬, 꾸준한 성과

진흥원은 2018년부터 ‘호남 문헌 국역 및 편찬’ 사업으로 연간 5~6책 분량의 문집 및 일기를 번역하였고, 현재까지 총 12종 34책을 발간하였다. 서목별로 발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추진한 번역대상은 『서암일기(棲巖日記)』, 『송암집(松巖集)』, 『후창집(後滄集)』이며, 가장 먼저 완역과 발간이 이루어진 서목은 송암 기정익의 『송암집』이다.

국역 발간물 현황(총 34책)

서암일기(棲巖日記)

김영찬(金永燾, 1859~1945) / 2책 / 완역 및 발간

송암집(松巖集)

기정익(奇挺翼, 1627~1690) / 2책 / 완역 및 발간

후창집(後滄集)

김택술(金澤述, 1884~1954) / 9책 / 완역 및 발간

서행록(西行錄)

송정약(宋廷岳, 1697~1775), 송지행(宋志行, 1741~1802), 송석년(宋錫年, 1778~1842) / 3책 / 완역 및 발간

답문류편(答問類編)

기정진(奇正鎭, 1798~1779) / 3책 / 완역 및 발간

현주집(玄洲集)

조찬한(趙繼韓, 1572~1631) / 4책 / 완역 및 발간

남포집(南圃集)

김만영(金萬榮, 1624~1671) / 2책 / 완역 및 발간

면파유고(綿坡遺稿)

박종상(朴宗相, 1865~1947) / 1책 / 완역 및 발간

금성삼고(錦城三稿)

나덕명(羅德明, 1551~1611), 나덕준(羅德峻, 1553~1604), 나덕운(羅德潤, 1557~1621), 나사침(羅士忱, 1525~1726) / 1책 / 완역 및 발간

농포집(農圃集)

정문부(鄭文學, 1565~1624) / 1책 / 완역 및 발간

일신재집(日新齋集)

정의림(鄭義林, 1845~1910) / 4책 / 완역 및 발간

정강일기(定岡日記)

김주현(金晝現, 1890~1950) / 2책 / 완역 및 발간 예정

기정익은 당시 ‘호남의 제일인(第一人)’으로 칭송될 정도로 학문과 명성이 자자하였고, 『주역(周易)』에 심취한 뒤 정밀하고 요묘한 뜻을 궁구하여 『역상해(易象解)』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회니시비(懷尼是非)에 연루될 때 송시열과 윤증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사제 관계로 맺어진 송시열을 존중하면서 노론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호남의 노론 학맥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서암 김영찬의 『서암일기』는 김영찬이 53세 때인 1912년 1월 1일부터 72세 때인 1939년 6월 15일까지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당시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자질구레한 것까지 기록하였고, 일기 사이에 한시 135수, 산문 28편을 저술하여 수록하였다. 그가 태극설, 이기설 등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다는 것을 일기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문학적인 면보다 학문적인 면이 돋보인다.

후창 김택술의 『후창집』은 진흥원에서 5년이라는 장시간을 투자한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김택술은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가이자, 유학자, 문장가, 교육자로서 당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특히 당대 저명했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수제자로서 도학과 문장이 빼어났다는 칭송을 받았고, 아울러 1,300여 수의 한시를 남긴 점으로 보아 시인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송정약, 송지행, 송석년의 『서행록』은 3대에 걸쳐 약 100여 년간 36차례 선조인 송대립(宋大立), 송침(宋謹)의 충효를 선양하기 위해 기록한 일기이다. 당대 절의가 있는 관리와 석학들에게 송대립과 송침의 묘문(墓文)을 부탁하기 위해 경기도 및 서울 일대를 왕복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외에 송정약 74수, 송지행 88수, 송석년 13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서행록』의 학술적, 문학적 가치를 고찰할 수 있다.

노사 기정진의 『답문류편』은 노사학(蘆沙學)의 요체가



일신재집(日新齋集)

노사학의 정수를 계승한 일신재 정의립의 문집이다.

집약된 책이다. 기정진이 그와 교유한 지구(知舊)와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중에 그의 학문과 사상의 골간을 이루는 내용을 그의 사후에 문인들이 별도로 모아 편집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정진의 학문과 사상 및 문인들을 통해 계승되어 정립된 일체의 학문 사상적 성과인 노사학의 정수를 살필 수 있다.

현주 조찬한의 『현주집』은 목릉성세에 활동한 문단의 풍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집이다. 조찬한은 문집에 변문 82편과 사부 43편이 실릴 정도로 조선조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변문과 사부의 작가로 활동하여 이안눌, 권필, 임숙영, 허균, 이식 등 당대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문재(文才)가 출중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남포 김만영의 『남포집』은 당시 호남에서 성리학의 중

장이라고 칭송되는 김만영의 사상과 사유 세계가 담긴 문집이다. 그는 주자학적 사유에만 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개방적 자세로 취하였으며, 나아가 주체적인 사유 과정을 거쳐 주자학을 극복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중용분위오대설(中庸分爲五大說)」, 「역상소결(易象小訣)」 등이 있다.

면과 박종상의 『면파유고』는 절조와 자락(自樂)의 삶을 지낸 그의 문학, 철학, 사학 등을 담은 문집이다. 그는 무안 박씨의 가학적 전통을 계승하여 세상의 이욕을 멀리하고 문도를 양성하면서 일제강점기에 항일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소포 나덕명, 금암 나덕준, 금봉 나덕윤, 금호 나사침의 『금성삼고』는 후손인 나두동(羅斗冬)이 네 분의 유고

를 합본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주된 핵심은 「병신봉사(丙申封事)」, 「기해봉사(己亥封事)」, 「을미봉사(乙未封事)」 3편의 상소로 기축옥사 때 억울하게 죽은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의 신원(伸冤)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간찰과 한시를 통해 네 분의 학문과 문학적 면모도 엿볼 수 있다.

농포 정문부의 『농포집』은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의병 활동으로 맹활약한 의병장 정문부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문집이다. 정문부의 유작으로 다수의 한시가 남아 있어 문학적인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임진왜란 연구에 미진하였던 황해도 지역 연구에 큰 사료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신재 정의립의 『일신재집』은 노사학의 정수를 계승한 문집이다. 그는 대곡(大谷) 김석구(金錫龜), 노백헌(老柏軒) 정재규(鄭載圭)와 노사 기정진의 3대 제자로, 노사학과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성리설에 조예가 깊었고, 특히 「납량사의(納涼私義)」, 「외필(猥筆)」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기치를 올렸다.

이와같이 호남 문헌을 번역하면서 그동안은 시대의 구분 없이 수집된 문헌을 중심으로 번역 사업이 전개되었다. 앞으로의 사업은 호남에서 학문의 근원이 되었던 문헌을 중심으로 번역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대순으로 연구 및 대중화가 시급한 문헌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 기증·기탁 문헌에 대해서도 번역할 예정이다.

인공 지능 번역 시대, 고전 번역 꿈꾸는 청년을 키우자

전염병으로 비대면이 확산되고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상황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번역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고민할 시기가 다가왔다. 그동안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중심으로 인재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전문 번역자가 양성되고, 상당한 번역 성과를 축적하였다. 이에 비해 후속 세대의 번역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고 인공 지능이란 신기술에 위협 당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승정원일기』와 천문 고전 분야를 대상으로 자동 번역 서비스를 2017년부터 3년 동안 개발하여 현재는 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 '한문고전 자동번역(시험판)'이 서비스되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현존하는 번역자들이 100년 동안 번역에 몰두하더라도 모든 문헌의 번역이 완료될 수 없다.'고 확인한다. 다량의 문헌을 인간이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인공 지능의 힘을 빌릴 시기가 다가온 것은 맞지만, 번역이라는 특수한 이 분야는 결국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마무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결국 인재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설 마련이 시급하고, 청년 인재가 고전 번역에 꿈을 꾸고 정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후창집(後滄集)

한국학호남진흥원이 5년여의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완역했다.



훼손 위기 고문헌 지킨 기증·기탁 필사본·날장 고문서 더욱 소중

안동교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

개인, 문중 보관 기록 자료들 훼손·도난으로 수난

일반적으로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을 통틀어 ‘호남(湖南)’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이 호남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은 호남인들이 남긴 생활·학문·정치·문화·예술 자료 등이 다수 생산된 곳이다.

반면에 호남은 수차례 벌어진 전란의 와중에 가장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당한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대한제국기와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록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약탈당했는지. 이어진 한국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기록 자료들이 또 얼마나 잿더미로 변했는지.

한때 만권택으로 불린 담양 지역 유희춘(柳希春, 1513~1577) 집안의 고서들이 정유재란 때 대부분 약탈당했고, 역시 만권택으로 불린 화순지역 하백원(河百源, 1781~1844) 집안의 고서들도 한국전쟁 통에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 두 집안의 문헌을 살펴보면, 고서는 소장량이 매우 적은 데 비해 고문서가 약간 소장되어 연구나 전시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문헌(文獻)’은 기록 자료(文)와 구술 자료(獻)를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 참고가 되는 기초 자료를 가리킨다. 기록 자료는 종이·나무·비

단·돌·쇠·도자기 등에 쓰이거나 새겨져 전승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종이에 기록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책자 형태로 묶인 고서, 날장 형태로 적힌 고문서, 글씨와 그림을 담은 고서화, 종이에 찍기 위해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긴 고목판 등이 기록 자료를 구성하는 자원들이다.

호남 지역에서도 전주·순창·남원은 닥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닥종이를 제작 보급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른바 ‘닥지’는 닥나무의 섬유질이 촘촘하게 짜여 매우 질기고 먹물이 고르게 번져 천년이 지나도 색깔과 글씨가 변치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닥종이는 습기와 좀벌레에 매우 취약하여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쉽게 부패·변색되거나 값아 먹히기도 한다.

현재 호남 지역의 개인이나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 자료들은 향운·향습·소방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습기와 좀벌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고서·고문서·고서화 등의 문화재적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절도범들의 기승도 심상치 않다. 이들이 절도한 기록 자료들은 은밀히 거래되거나 역외로 대량 유출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필자는 담양 지역 계당(溪堂) 자료의 상당수가 좀벌레에 속절없이 부스러져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 바 있다. 그리고 보성 지역 은봉종가(隱峯宗家)의 고서와 고문서가

절도당하여 이 지역에서 거래되거나 경상도 모 대학으로 팔려나간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

2008년 가을쯤으로 기억된다. 계당 주인으로부터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필자는 서지학을 전공한 지인과 함께 한달음에 계당으로 달려갔다. 계당에 들어서자 주인이 골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바람이 거의 통하지 않는 음습한 북쪽 방, 벽에 차곡차곡 쌓인 고서들, 그리고 매캐하다 못해 시신이 썩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 우리는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직감하였다. 일단 고서들을 계당 마루로 끄집어내어 먼지를 털어 보는데, 어떤 책은 종이 많이 먹어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어떤 책은 구멍이 뽕뽕 크게 뚫려 있고, 어떤 책에는 구더기처럼 생긴 책벌레 유충이 꿈틀거렸다. 10여 년이 넘도록 거풍(擧風)을 시키거나 햇볕을 쬐지[曝曬] 않았으니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일단 주섬주섬 정리해 두고 이튿날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계당에 소장된 고문헌 일체를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위탁 보관하였다.

도서관에서는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위탁된 고문헌들을 훈증기에 넣어 항균 소독 처리를 하기도 하고 책벌레 유충을 낱알이 책장을 넘기며 핀셋으로 잡기도 하였다. 종이킵 가득 꿈틀대는 유충을 보니 참으로 놀라웠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쳐 재탄생한 계당 고문헌은 고서 1,117책, 고문서 약 3,000건, 고서화 143점 등 도합 4천여 건이 훨씬 넘었다. 그중에서도 금속활자본 14종, 필사본 146종,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중본 11책, 동현간독(東賢簡牘) 및 동현간첩(東賢簡帖)과 같은 첩본류는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문헌들이었다.

그 무렵에 400여 년을 지켜온 은봉종가의 문헌이 절도당하였다. 종손이 사랑채를 비운 틈을 타 돈이 될 만한 고서와 고문서를 골라서 절취해 갔다. 필자의 암산으로 고서 500여 책, 고문서 100여 건 등 도합 600여 점 정도 되는 문헌이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수집 자료 현황 (2023.6.30 기준)

국학 원자료					향토사 자료	합계
고문서	고서	서화	목판	유물		
50,337점	14,308점	1,212점	143점	771점	23,194점	89,965점

고서·고문서 등 약 8만여 점 수집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5년 전에 두 지자체의 상생 과제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출범시켰다. 호남권 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연구·편찬·보급·확산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 진흥원이 표방한 첫 번째 미션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 자료를 토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호남 한국학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진흥원의 첫 번째 전략 목표이다.

진흥원은 지난 5년여 동안에 호남 지역과 기타 지역의 개인·문중·기관 등 80여 소장처에서 고서·고문서·목판·서화·기타 유물 등 약 8만여 점을 수집하여 향운·향습·소방·방충 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학 원자료가 66,771점이고, 향토사 자료가 23,194점이다.

전남 지역(60개처)에서는 목포·나주·여수·장성·영광·함평·곡성·장흥·보성·고흥·무안·강진·화순·영암·해남·완도의 자료가, 전북 지역(4개처)에서는 전주·순창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광주광역시(15개처)와 서울특별시(1개처) 자료도 수집되어 있다. 이 중에는 장성의 행주 기씨



금강종가, 영광의 진주 강씨 수은종가와 전주 이씨 병사공종가, 장흥의 장흥 위씨 존재종가, 나주의 풍산 홍씨 석애종가, 보성의 죽산 안씨 은봉종가, 광주의 행주 기씨 고봉종가 등 호남 유수의 종가 자료가 기탁되어 있고, 광주향교·무열사·금호사·오층사·충절사·노송사·군자서원·덕양서원·고산서원 등 향교와 사원(祠院) 자료도 기탁되어 있다. 이외에도 금산서사·지송정사·석천정사·죽곡정사·봉강정사·덕림정사 등 서당 자료도 기탁되어 있다.

수집 자료는 대부분이 기탁 자료이지만 기증 자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헌 소장자들이 먼 후대까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전 자료가 잘 전승되기를 희망한 때문이다. 기증·기탁 자료 중에는 보물 3점, 등록 문화재 91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51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18점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해년마다 1만 점에서 1만 5천 점씩 수집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는 30만 점에서 40만 점 가량이 수집되어 명실공히 호남의 기록 자료를 집적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기증·기탁 자료, 수장고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낙후된 건물을 빌려 임시로 수장고를 운용해서는 불가능하다. 최첨단화된 넓고 안전한 수장고가 필요하다. 현재 임시로 조성한 진흥원의 수장고는 수장 능력에 한계에 도달하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보존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 첫 번째 전략 목표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사를 하루 빨리 건립하여 연구와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집·연구·진흥이 균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만 한다.

혹자는 묻는다. 왜 옛날 문헌을 수집해야 하느냐고. 각종 대학교와 기관의 도서관에 엄청난 고서가 있지 않냐고.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이들은 활자로 인쇄된 기록 자료만 중시하는 일면적인 연구자들이다. 활자화한 기록 자료들은 정제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지만, 진흥원에서 주로 수집하는 필사본 자료와 낱장 고문서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예컨대 어떤 활자화한 문집에 실린 편지는 당사자가 평생 쓴 필사본 편지의 절반도 수록하지 못한다. 필사본 일기는 아예 문집에 실리지 못하거나 실려도 발췌, 축약되어 실린다. 아직 인쇄하여 보급하지 못한 절반의 필사본 기록 자료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들 필사본 기록 자료들은 대부분 유일본들이어서 한번 없으면 영영 되찾을 수 없다.

필사는 오래전에 하백원 집안의 고문서 속에서 실학자 홍대용(洪大容)의 서간 두 통을 찾아낸 적이 있다. 과학자 나경적(羅景績)의 도움을 받아 나주에서 혼천의(渾天儀)를 제작할 때에 나경적에게 천문 관측의 정밀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었다. 물론 이 서간들은 홍대용의 문집 『담헌서』에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그간 학계에서는 이 서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이 서간이 담고 있는 짙막한 정보는 홍대용과 나경적 그룹의 혼천의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여서 한국 실학사나 한국 천문학사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이처럼 호남에서 한국학을 진흥하는 일은 ‘인쇄본 자료’와 ‘필사본 자료’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어떤 인물의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면적인 연구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혹한 수난으로 호남 지역의 옛 문헌은 많은 분량이 멸실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문중과 개인이 고서·고문서·고서화·목판·기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진흥원의 설립은 결국 음지에 숨겨지거나 무지로 방치된 옛 문헌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증·기탁자들이 안심하고 소장 자료를 맡길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경제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



야 한다. 진흥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산재된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집 팀을 구성해야 하고, 장기간 체계적으로 현장 조사(fieldwork)를 진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신속하게 정리되어 학계나 대중에게 보고되고 국학 연구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호남 지역의 각종 문헌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수집·정리·보관·연구할 이른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청사 건립과 수장고 확충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다. 매장 문화재의 발굴과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지류(紙類) 문화재의 수집과 활용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관계자들은 통렬히 자각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 보관되고 있는 국의 유출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훼손되고 유출되어가는 우리 주변의 옛 문헌을 수집·정리하는 일도 다급하다. 우리의 귀중한 옛 문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쉬며 연구자들의 애뜻한 눈길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 ☺

고문서 숨결 살려내는 보존 처리와 영인 복제

조광현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민간에 흩어져 관리되지 못하고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기록유산이 아직도 도읍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소장자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 전에 더 많았으나 관리가 힘들어 이사하면서 다 버리고 왔다’라는 말이다. 연구자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느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이다.

보통 민간에서는 자료를 창고나 다락방, 장롱 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집안에 보관하면 다행이나 시골의 경우 대부분 창고 한쪽 구석에 보관한다. 따라서 온습도 조절이 안되거나 쥐와 좀벌레 등에 의한 자료 훼손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수집된 문서의 관리에는 더욱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진흥원은 약 6만6천 점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80% 이상이 문중 자료다. 기증·기탁 받은 이들 자료는 진흥원 자료 정리실로 옮겨져 먼지 제거, 평판, 유형 분류의 작업을 거친다. 정리 지침에 따라 세부 목록을 작성한 후 라벨링 작업을 한 후 DB와 출판 작업을 위한 고화질 이미지 촬영을 거쳐 수장고로 입고한다. 항온·항습 설비를 갖춘 수장고는 정기적인 방충·방역 소독을 실시해 자료 보존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료의 훼손을 방지한다.

보존 처리는 원본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보존 처리가 진행되기까지



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검토가 요구된다. 보존 처리 이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하며 원본 자료를 살피는 등 수집 및 기탁 자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인 복제 또한 원본 자료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대중을 위한 전시와 활용을 위해 수장고 밖을 자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안정된 보존 환경 속에서 보관되어 있는 원본 자료 대신 동일한 형태로 복제한 영인본으로 대체하여 대여 또는 반출하고 있다.

이처럼 보존 처리와 영인 복제는 원본 훼손을 철저히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후속 세대에겐 민간 기록유산의 원본을 물려주고 귀중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

보존 처리로 훼손 위기 벗어난 고문서와 그림

진방일 초상화 응급 보존 처리 1점(2019)



『간양록』 등 5종 10책(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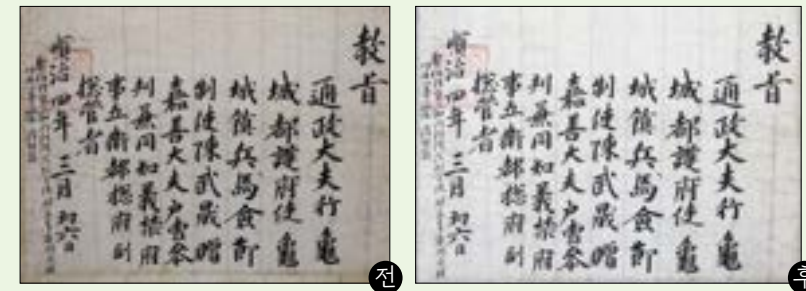
장성 행주 기씨 소장 고문서 25점(2020)



영광 추원재 소장 고문헌 6점(2022)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 13점(2020)



행주 기씨 문헌공 종중의 뜻깊은 기탁

고봉 기대승 선생의 친필 문헌 등 정신문화와 문중 역사 담은 고문헌 802점

조미은 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장



고봉 기대승 관련 자료 소장자인 기성근 씨와 면담(2022.4.12.)

고봉의 선대는 원래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사화(士禍)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터에 정착하였다. 그곳이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흥동인데, 예전의 행정 구역 명칭으로는 광곡리(廣谷里)라고 하였다. 순우리말로 ‘광곡’은 ‘너브실’이라고 하여 행주 기씨가 모여 살았던 곳을 ‘너브실 마을’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너브실은 고봉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마을이다.

고봉의 직계 후손들은 여전히 너브실에 뿌리를 두고 살아오고 있으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문화를 소중히 간직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정신 문화 유산이 바로 기록이며 일반적으로 고문서, 고서라 불리는 옛날 문헌 자료이다. 고봉이 남긴 여러 기록과 그를 이어 후손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문화유산 자료는 일찍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주요 자료는 번역

을 하여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자료 이외에도 고봉 종가에 전래한 고문헌 자료는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료의 전수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대로 조사되거나 정리되지 못하였다. 대대로 지켜 온 집안의 보물 자료를 외부에 선뜻 공개한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2023년 6월 23일에 광주 행주 기씨 고봉 기대승 종가에서 몇백 년 동안 지켜 온 고문헌 자료 802점을 기탁하였다. 기성근 종손 어른님과 행주 기씨 문헌공 종중의 사려깊은 결정으로 성사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자료 기탁을 유도하기 위해 진흥원 또한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처음은 2022년 4월 기성근 종손 어른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자택을 방문하여 소장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한 일이었다. 당시 11월에 개최 예정인 고봉

선생 서세 45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관련 자료 협조를 구하고자 행사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자료 기탁 추진에 대해서도 기탁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종손 및 문중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이후 11월 23~24일에 고봉 선생 서세 450주년을 기념하여 선생께서 남긴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진흥원과 광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기성근 종손 어른님을 비롯하여 행주 기씨 문헌공 종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고봉 선생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셨다. 고봉 선생의 학술 사상과 시대정신, 호남을 대표하는 선비 정신의 현대적 재해석 등 학술 및 대중 강연은 물론 문화 행사까지 병행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후 천득염 원장께서 종중 어른님 몇 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시면서 자료 기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설득하셨다. 그리고 안동고 자료교육부장께서도 문중 관계자 분들과 접촉하시면서 자료 기탁에 대한 설득을 계속 이어가셨다. 그 결과 기성근 종손과 종중이 한마음으로 진흥원에 자료를 기탁하기로 결정을 내려주셨다.

기탁 의사를 밝히신 직후 기성근 종손과 종부님을 모시고 진흥원 수장고를 직접 열람시켜 드리고 기탁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다. 한편, 연로하신 기성근 종손께서는 앞으로 자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차

종손인 아드님에게 양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어 아드님과 함께 자료를 기탁하기로 하셨다. 이후 종손가에서 간직해 온 수백 여 점의 자료가 새로운 보금자리인 진흥원 수장고로 안전하게 이관되었다.

진흥원으로 자료가 기탁된 직후 다시 한번 종손 내외분을 초청하여 기탁해 주신 데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향후 기탁 자료에 대한 계획을 함께 논의하였다. 종손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 외에도 현재 ‘너브실’ 마을 별도 공간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또한 추가 기탁하기로 협의하였다. 또 기탁 자료 가운데 고봉 선생의 친필 등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리와 학술적인 검토를 통해 문화재 승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고봉 종가에 현전하는 자료는 고봉의 선대가 언제 광주로 내려와 정착하였으며, 이후 종가 및 문중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해 왔는지, 집안의 경제 기반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가문과 통혼 관계를 맺어 혼맥을 이어 왔는지,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갔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였는지 등 고봉을 있게 한 행주 기씨 집안과 고봉 이후 그의 정신문화와 가치를 계승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향후 기탁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지역민에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6



『선세문서유적』
고봉 형제 간에 재산 분배를 하면서 작성한 재산상속문서, 손녀사위 초찬환의 별급문기, 간찰 등이 성첩되어 있다.

“저의 시에 화답한 선생의 시를 삼가 받고 감사한 나머지 감히 다시
그 운을 써서 살펴보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伏蒙先生俯和鄙韻 感幸之餘 敢復用韻 仰塵盛覽 伏希郢正

先生夙所慕 隔澗川塗遠 憑書屢質疑 演刮啓玄鍵
 今來幸承顏 提掇鑑微懇 譬如大明鏡 照物物莫遁
 意契莞而懽 趣異默相付 述圖極深奧 摘藻轉清婉
 撐船要上水 員輻終踰阪 證父嗤葉黨 訟君誅衛咥
 浩尔正氣充 曠然丹田壑 襟期任切磨 勢利寧攀輓
 芝蘭藹在室 稷黍紛盈碗 行藏葆高厚 潛躍據蟪蛄
 慕惟聖傳緒 千載同繾綣 道合遇元夫 朋來濟大蹇
 鄒孟豈好辯 楚屈休患蹇 矢心斃後已 奚啻農夫蓺



퇴계 이황 (위)과
고봉 기대승

조선 중기 대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과
고봉 기대승(1527~1572)은
유명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00여 편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과 경애의 마음을 나눴다.

선생은 일찍부터 앙모하던 분이신데
산천에 가로막혀 길이 멀어라
편지를 보내 누차 질의하니
바로잡아 깊은 이치 계발해 주셨고
이제와 다행히 만나 뵈오니
미천한 정성 살펴 이끌어 주셨네
비유하자면 마치 커다란 명경이
빠짐없이 사물을 비춤과 같다오
의사가 계합하니 빙그레 기뻐하고
지취가 다름은 묵묵히 헤아려 주셨네
도본을 기술함 몹시 심오하고
시문을 구사함 갈수록 청아하네
배를 저어 물을 거슬러 오르려면
바퀴살을 덧대어야 마침내 언덕을 넘으리라
아비를 증명한 섭공의 무리가 우습고
임금을 숭사한 위나라 원훤은 주륙되었네
호연하게 정기가 가득 차고
시원하게 단전이 개간되었네
홍금을 갈고 닦기만 할 뿐
세리에 어찌 매달릴까 보냐
지란은 성대하게 방에 있고
서직은 무성하게 밭에 가득하네
행장은 고명 박후를 지켰고
잠약은 미물까지도 헤아렸네
공경히 성인이 전한 단서를 생각하니
천 년 동안 똑같이 곡진하여라
도가 합하니 원부를 만났고
벗이 오니 대건을 건넜네
추나라 맹자 어찌 번론하기를 좋아했겠는가
초나라 굴원은 충언을 근심하지 않았다오
맹세코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것이니
어찌 농부의 복돋는 일일 뿐이겠는가

先生夙所慕 隔澗川塗遠 憑書屢質疑 演刮啓玄鍵
 今來幸承顏 提掇鑑微懇 譬如大明鏡 照物物莫遁
 意契莞而懽 趣異默相付 述圖極深奧 摘藻轉清婉
 撐船要上水 員輻終踰阪 證父嗤葉黨 訟君誅衛咥
 浩尔正氣充 曠然丹田壑 襟期任切磨 勢利寧攀輓
 芝蘭藹在室 稷黍紛盈碗 行藏葆高厚 潛躍據蟪蛄
 慕惟聖傳緒 千載同繾綣 道合遇元夫 朋來濟大蹇
 鄒孟豈好辯 楚屈休患蹇 矢心斃後已 奚啻農夫蓺

“선조가 남긴 고문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입니다. 잘 보존하고 온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후손의 책임이지요”

고문헌 첫 번째 기탁 문종
행주 기씨 금강 문종 후손 기호철 씨

선대의 자료를 지켜낸 과정에서 잊지 못할 일화가 있으신지요?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자료를 지켜 오셨는지요?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 종가는 금강(錦江) 기호간(奇孝諫, 1530~1593) 선생의 인재(忍齋)였습니다. 기태온(奇泰溫, 1738~1815)이 아우 기태검(奇泰儉)과 이곳에 나란히 살면서 중국 하남성에 살던 정호(程顥) 정이(程頤) 형제처럼 학문을 이루자는 뜻을 담아 망정와(望程窩)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종갓집 전체를 이르는 이름이 하남정사였고 골짜기 마을이 하남(河南)이 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하남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랑채는 기양연(奇陽衍, 1827~1895)이 백석헌(柏石軒)으로 당호를 고쳤습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사랑채 백석헌 동쪽에 도서관인 책방(冊房)이 있어 서적을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산악 지대인 일대가 인민군 소굴이 되므로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때 백석헌도 불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군이 하남정사를 불태웠는데, 중요한 것은 꺼내도록 하여 책방과 백석헌에 있던 고전적을 모두 꺼내어 나무 궤에 담아 자물쇠를 채우고 큰 벗가리처럼 쌓아 이영을 덮었는데, 모두 셋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째서

자물쇠를 채웠는지 후회하고 있는데, 인민군이 중요한 것이 들었는가 해서 모든 궤를 쪼개고 책이 담긴 두 곳은 모두 불사르고, 하나는 일부만 태웠지만 궤는 모두 쪼개지고 흩어진 문서들이 하남정사 일대 골짜기를 뒤굴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 들어올 때면 따라 들어와 골짜기를 뒤굴고 나무에 걸려 나부끼는 문서를 수습해서 지킨 것이 지금 전하는 고문서입니다. 서적은 4천여 책 이상이었고, 백석헌 기양연의 사초(史草) 등을 담은 궤만 6개가 넘었는데 모두 불탔습니다. 선조의 유품이므로 남은 것이나마 글자 하나도 밖으로 유출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택시를 타고 하남정사로 급히 가셨는데, 지나가는 어떤 트럭 뒤에 사랑채 앞 섬돌(백석헌)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도난당할 뻔 했던 섬돌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진흥원이 설립된 직후 첫 번째로 수천여 점의 자료를 흔쾌히 기탁해 주셨는데, 기탁을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을까요?

TV에서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출가

한 누님들이 반농담으로 딸도 좀 달라고 자꾸 이야기 하자, 가친께서 이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탁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계(기호철) 기탁할 곳을 찾으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립민속박물관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기탁하면 좋겠다고 여쭙었는데, 국립민속박물관이 상설 전시를 하는 등 조건이 좋아 그곳에 기탁하면 좋겠다고 여쭙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친께서 자꾸 보류하였는데, 낙남하여 호남에 산 지가 500년인데 유품이 고향을 떠난다는 점 때문에 주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하던 중에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가친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진흥원의 권수용 선생님께서 대단한 열정으로 가친을 설득했습니다.

행주 기씨 후손으로서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으신지요? 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나요?

‘효제충신(孝悌忠信) 예의염치(禮義廉恥)’ 여덟 글자를 시대를 초월하여 견지해야 할 가치관으로 교육 받았고, 후손에게 가르칩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지역민에게 베풀고 살았던 유습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고서 등을 밖으로 내어 포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느 고서 책에 어떤 문서가 끼워져 있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매년 백중날이 되면 차일(그늘막)을 치고 우리집 형제들은 포쇄 작업을 하고 일꾼들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하였습니다. 잔치를 하지 않을 때는 관광버스를 빌려 동네 사람들 여행을 보내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백중날은 그렇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 전통만은 아버님께서 지키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장성 아치실 기씨는 애초에도 양반가로서는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곳 하남정사의 백석헌(柏石軒), 동재(東齋), 서재(西齋), 청음정(淸音亭), 보산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행주 기씨 금강 문종 사당에서 500년 가까이 이어온 문종의 역사와 정신을 설명하는 기호철 씨

정(普山亭)과 더불어 하남정사에 딸린 소곡서당(小谷書堂), 제청서당(祭廳書堂), 행촌서당(杏村書堂)에서 일가가 모여 학문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을 거치며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의리에 충실했다는 점은 후손으로서 자랑이지만 시대 변천에 따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조금씩 회복되는 듯하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기탁해 주신 자료가 앞으로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었으면 하시는지요?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역사학을 공부했고 한문학으로 업을 삼았지만, 가친의 뜻에 따라 집안이나 선조의 연구나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연구하려면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후손이 제대로 비판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제대로 비판하면 족속은 이를 비난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탁하여 공개했다면 싫든 좋든 그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의 몫이고 후손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

화재 지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아버님께서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쓰고 너무 과장된 내용은 삭제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금강 중가 고문서는 지금 도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보물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와 아울러 이곳 하남정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보존과 활용은 그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여깁니다. 단순히 우리 것이고, 오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존되는 문화재는 생명력을 상실한 문화재라고 여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유용하고 후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문화재가 되도록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진흥원에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간난신고를 거치며 진흥원이 조금씩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국학 속에서 호남학으로의 자리매김은 지금까지도 미진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라면 한국학이라는 보편성 속에서 호남학의 특수성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기



소중한 기증·기탁의 의미와 문중의 가치를 전해들은 기호철 자료 소장자와의 인터뷰는 8월 5일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83번지 자택에서 조미은 기획연구부장과 임찬영 연구위원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금강선생종택백석헌유적비’(위)
‘하남정사’의 사랑채인 백석헌의 주춧돌과 백석헌 현판 글씨

본일 텐데 지역 정치 논리에 휘둘려 보편성을 자꾸 놓치고 허상의 특수성만 찾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자리매김은 결국 지역 정치에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 정치 논리에 따르면 진흥원은 ‘고립종’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기탁 이후 개별적으로 보관해 오던 자료들을 모아 책으로 묶고 전문가들이 그 가치를 토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회가 있으신가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후손 눈치를 보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 이런 점을 극복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개원 초부터 호남학 자료 기증·기탁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기증·기탁을 망설이는 문중이나 개인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았고 사정을 들어보면 안타깝습니다. 선조가 남긴 고문헌은 후손에게 남긴 재산이 아닙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이므로 그 무한한 값어치를 더하여 이를 후대에 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증이나 기탁을 통해 잘 보존하고 이를 온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자꾸 내 재산이라고 여기면 결국은 지키지 못합니다. ㄹ



시강원 명패(전면), 국립고궁박물관(창덕18937). [사진 2]

시강원 명패(후면), 국립고궁박물관(창덕18937). [사진 3]

임금의 명으로 관원을 부르다

패초 牌招

이강욱 은대학당장

조선 시대의 3대 관찬 사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을 꼽는다. 이들 사료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어휘 하나를 뽑는다면 아마도 ‘패초(牌招)’가 아닐까 싶다. 3대 관찬 사료 중에서도 가장 책 수가 많은 『승정원일기』에서 ‘牌招’를 검색해 보면 약 18만 건 정도가 나온다. 『승정원일기』는 한 달이나 반 달 치의 기사를 묶어서 1책으로 편찬하였고 현재 3,243책이 남아 있으므로, 대략 계산해 봐도 하루에 2건 씩은 ‘패초’가 기록된 셈이다.

“대교(待敎) 박우원(朴祐源)은 휴가 기한이 지났으므로 즉시 패초(牌招)하여 입직(入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 4월 20일

위의 사례는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상암(李商巖)이 정조에게 아뢰는 것으로, 예문관의 정8품 대교 박우원을 불러들여 숙직 근무하게 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 패초는 이처럼 왕명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사료에 기록된 패초는 승정원의 승지가 요청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는 기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것은 승정원이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기관이고, 패초는 왕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승정원이 국왕의 허락을 받아 관원을 패초할 때에는 패초가 왕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관원에게 ‘패(牌)’를 보냈다. 이런 ‘패(牌)’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명패(命牌)로, 당상관 이상 및 당하관 중 옥당(玉堂)·대간(臺諫)·춘방(春坊) 등을 패초할 때 사용하였고, 또 하나는 분패(粉牌)로, 당하관을 패초할 때 사용



명패『보인부신총수』,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291). [사진 1]

하였다. 승정원의 업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은대편고(銀臺便攷)』에는 명패와 분패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가 나와 있다. 그에 따르면, 명패에는 ‘아무 관직 아무개는 나아 오라.[某官某進來]’라고 적고, 분패에는 ‘전교를 듣고 갈 수 있도록 아무 관직 아무개는 말을 달려 나아 오라.[傳敎聽去次某官走馬進來]’라고 적었다.

[사진 1]은 고종 때 발간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수록되어 있는 시강원(侍講院)의 관원인 춘방을 패초할 때 사용하던 명패이다. 이 명패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아로 만들고 위에는 연잎 모양을 새겼다. 한쪽 면에는 이 명패를 사용할 관사의 이름인 ‘侍講院’ 3자를 전서(篆書)로 새기고 국왕의 사인(sign)이라 할 수 있는 어압(御押)을 새겼으며, 다른 한쪽 면에는 위에 ‘命’ 자를 새기고 그 아래에 ‘輔德’ 등 패초할 춘방의 관직명을 새겼다. 글자를 새긴 곳에는 모두 붉은색을 입혔다. 춘방을 부를 때면 이 명패에 새겨진 관직명 아래에 해당 춘방

의 이름을 적어서 보냈다.

[사진 2]와 [사진 3]은 세자시강원의 춘방을 패초할 때 사용했던 명패의 실물 사진이다. 이 명패의 한쪽 면에는 ‘侍講院’ 3자와 고종의 어압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命’ 자가 새겨져 있으며, 모두 붉은색으로 입혀져 있다. ‘命’ 자 아래에 관직명이 새겨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춘방을 패초할 때 ‘命’ 자 아래에 패초할 관원의 관직명과 성명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패초는 승정원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패나 분패를 발급할 때에는 승정원의 정7품 벼슬인 주서(注書)가 패초할 관원의 성명 또는 직명과 성명을 패에 적어 승정원의 사령(使令)에게 나누었다. 그러면 사령이 그 패를 가지고 해당 관원의 집으로 찾아가서 전달하였는데, 이처럼 패의 전달을 책임진 사령을 패사령(牌使令), 명패사령(命牌使令), 지패사령(持牌使令) 등으로 불렀다.

“방금 정관(政官)을 패초하여 정사(政事)를 열라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병조판서 이연상(李衍祥)을 패초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의 패사령인 김수광(金壽光)이 와서 보고하기를, ‘명패를 전달하러 가던 도중에 의정부 권두(權頭)인 장종득(張宗得)이라는 놈이 술에 취해서 싸움을 벌여 심지어 명패를 부러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막중한 명패에 이처럼 전에 없던 변괴가 발생하였으니 너무도 놀랍습니다. 정관을 부르는 명패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다른 명패를 다시 내보내기는 하였습니다만, 장종득과 김수광을 형조로 이송하여 엄중히 조사해서 적용할 형률(刑律)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승정원일기』 정조 5년 윤5월 5일

위의 사례는 승정원의 우승지(右承旨) 조시위(趙時偉)가 정조에게 아뢰는 것으로, 명패를 전달하러 가던 승정원의 사령 김수광이 도중에 의정부의 권두인 장종득과 싸움이 붙어 명패가 손상된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정관은 조선 시대에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이조와 병조의 관원을 말한다. 이 일로 김수광은 장(杖)을 친 뒤 풀어주고, 장종득은 90대의 장을 치고 황해도 풍천부(豐川府)에 2년 6개월의 도형(徒刑 징역형)에 처하였다.

패사령으로부터 패를 전달받은 관원은 패사령에게 대궐에 나아갈지의 여부를 밝히고, 자신이 직접 대궐로 나아가서 받은 패를 바쳤다. 이처럼 패를 반납하는 것을 납패(納牌)라고 하였다. 관원이 패초하는 명을 받고 대궐에 나아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패(承牌)라 하고, 패초를 받았으나 명을 어기고 나아가지 않는 것을 위패(違牌)라 하였다.

패초는 국왕의 명으로 관원을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던 제도로, 승정원의 사령이 패초할 관원에게 명패나 분패를 전달하면 그 패를 받은 관원이 대궐 안으로 나아갈지의 여부를 밝히고 자신이 직접 대궐로 나아가서 받은 패를 반납하였다. 패초는 필요한 관원을 불러들여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였으나, 패초하는 명을 따르지 않고 몇 차례쯤 위패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처럼 여기는 풍조도 있어서 한 사람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패초해야 하는 폐단도 있었다. 6

호남 국학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는 법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 국학 종합DB’를 클릭하세요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인들의 삶과 사상, 지혜가 담긴 호남 국학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증·기탁된 자료 중 목록 정리가 완료된 고문헌을 위주로 상세한 해제를 하고, 원문텍스트를 정서하여 일반 대중 및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DB(<http://db.hiks.or.kr>)를 구축했다.

호남 국학 종합DB 사이트에 탑재된 고문헌은 크게 고서와 고문서로 나뉜다. 고문서는 각각 유형별, 소장처별, 지역별, 시기별로 분류되어 있어 원하는 자료별로 검색할 수 있다. 고서는 호남근현대문집, 일기, 서원향교지, 국역, 표점 등 주제별로 필요한 콘텐츠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고서, 번역서, 표점본 등의 경우 각 권별로 제목에 맞게 원문 이미지가 연계되어 있어 각 내용별로 이미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국학의 발전과 보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학 자료 DB 구축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존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문화를 창달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 국학 종합DB
<http://db.hiks.or.kr>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나이에 따라 가르쳐
몸과 마음에 무젓도록 해야 한다”

실학 교육을 가숙에서부터 실천하고자 주창한 위백규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그림 1. 위백규가 1754년
(영조 30)에 쓴 「가숙학규」

존재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황윤석, 하백원 등과 더불어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였다.
그는 평생 전라도 장흥에 묻혀 살았지만,
학자로서의 명성이 서울에까지 널리 알려져
드디어 당시의 임금인 정조의 귀에까지 들렸다.

정조는 1795년(정조 19)에 위백규의 저작 중의 하나인 『환영지(寰瀛誌)』를 올려 보내도록 했다가 이듬해에는 그의 문집을 모두 등사해 보내도록 명령했다. 이때 정조가 어서 보기를 원해서 관으로부터 독촉이 심해지자 미처 등사하지 못한 채 저작의 원본을 보냈는데 정조 사후에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초고조차 전하지 않은 저작들이 있다고 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학문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 주는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실학자로서의 그의 면모는 정조가 그토록 열람을 원했던 여러 저작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지만 집안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한 가숙(家塾)의 학규(學規)를 보면 매우 두드러진다.(그림 1 참조) 그는 집안의 아동들이 6살이 넘으면 가숙에 입학해 공부하도록 권장했다. 물론 당시의 학규가 대부분 그러하듯 서당(書堂)이나 서재(書齋)에서 공부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나 예의범절의 큰 줄거리만을 밝혀 놓은 것이 데다가, 또 학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던 주희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이나 이이의 은병정사(隱屏精舍)의 그것에 따른 것이지만 간지학(干支學), 보첩학(譜牒學), 산수학(算數學) 및 사례학(四禮學) 등을 훈장이 직접 교육토록 한 점은 매우 독특하다.

간지학이란 천지를 움직이는 음양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인데 가학에서 간지의 이름과 방위 등을 가르치도록 했다. 전통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간지로 표기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는 6세 이상의 아이에게 훈장이 직접 가르치도록 했다.

보첩학은 족보학(族譜學)으로 8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조상의 세계(世系)와 내외족파(內外族派)의 인물들을 인지하도록 했다. 자신이 어느 조상으로부터 피를 이어받았는지, 조상 중에는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를 인식하여 가문이나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일찍부터 교육했다.

산수학은 일종의 계산학으로 이를 교육하면 실제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유학자들은 이를 신분이 낮은 중인(中人)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아전(衙前)이나 배우는 잡학(雜學)이라 생각했는데, 위백규는 이를 가학에서 10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교육토록 했다.

사례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은 통과의례에 관한 것인데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은 이를 예학(禮學)이라 하여 매우 중시했지만 실제 생활을 하면서 의례 때마다 혼란을 자주 겪었다. 절차나 의식에 있어서 까다롭게 따져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나이에 따라 익히도록 해서 12세 이상의 아이에게는 상례를, 그리고 15세 이상의 아이에게는 나머지 예를 가르치도록 했다.

이처럼 위백규는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가숙에서 어려서부터 나이에 따라 가르쳐 몸과 마음에 무뎠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후 개개인의 재주와 품성에 따라 제술(製述)이나 강경(講經)을 공부시켜 유학자로서 교양(教養)을 쌓도록 하고 나아가 기회가 닿으면 과거 시험 등을 거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시험을 거쳐 관리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일생 동안 도학(道學) 공부에만 정진하려 했으며 과거 시험에 응시하거나 이를 거쳐 관리가 되는 것은 비록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고 조상을 빛내게 하는 일이지만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오로지 도학 즉 성리학 공부에 몰두한 인물이 많았다.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오로지 성리학 공부에 몰두하는 것만 그들의 본령으로 인식하고 과거 시험을 치르거나 이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을 세속적인 일로 인식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위백규는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을 유학자의 일종의 하나로 규정했다. 이는 그가 지은 계당학규(溪堂學規)를 보면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계당은 혈연 중심의 가숙과는 약간 다른,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었던 서당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 그는 당시의 유학자 즉 선비들의 과거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늘날 과거 문장을 익히는 공부 또한 유학자의 일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으레 모두 방탕하고 안일하게 장난삼아 희롱하면서 과거 문장을 익힌다. 그러나 글을 짓는 핵심 방법이나 과거 문체의 지



그림 2. 위백규가 쓴 「계당학규」 (작성 연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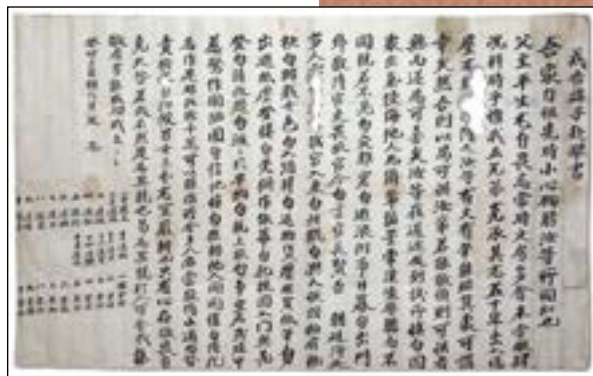


그림 3. 위백규가 1783년(정조 7)에 여러 아들에게 써 준 「계고제자부거서」



장흥 방촌마을에 있는 '존재고택'

름길 또한 방심하는 자들이 능히 살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서당에서는 이러한 습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과거 공부를 하는 것이 유학자의 일이라 명토 박고 과거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어려서부터 이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권했던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이 유학자 즉 선비의 일이라고 자신이 주장하는지를 주자와 정자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자와 주자를 비롯한 여러 선생은 성학(聖學) 즉 성리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근래에 오로지 과거만을 통해 선비를 선발하니 만일 선비가 과거 공부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 벼슬해서 군주를 섬길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며 과거 공부를 도학 공부와 아울러 하는 것이 불가한 일은 아니다 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으니 그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 즉 정자나 주자조차도 성리학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라고 권장했다는 것이 위백규의 논리였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려 50년 동안 과거 시험장에 출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시험장에 출입하는 여러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권하며 쓴 <계고제자부거서(戒告諸子赴舉書)>를 보면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그는 이 글에서 아들에게 의막(依幕)을 설치하지 말고 시험장을 넘어 들어가지 말며, 시험문제 교체를 요구하지 말고 시험지를 빨리 내려고 서두르지 말라는 등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이를 꼭 경계하도록 당부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당시 과거 시험장을 출입하는 유학자들이 관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들이었다.

위백규의 이러한 짧은 글들을 통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허황된 꿈에 도취한 채 아직도 공리공담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호남학을 찾아서

오종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호남과 호남학

호남이란, 본래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 부여를 지나는 금강의 옛 이름, 호강(湖江)의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컫는 호남이란, 벽골제 호(湖)의 남(南)이라는 뜻이다. 벽골제는 신라 흘해왕(재위 310~356)때부터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 지명의 역사는 오래다.

벽골제 옆으로는 노령산맥이 지나가고, 북으로는 김제 익산 왕궁을 거쳐 공주 부여로 통하여, 백제의 왕도에 이를 수 있었지만, 남쪽에서는 북흥 쌍치를 넘어야 북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노령의 이남은 조정에서 밀려난 벼슬아치들의 은거지가 되었고, 관리들의 횡포 또한 심하여 이곳의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이어 와야 하였다.

다행히도 담양에서 발원한 영산강이 영암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생활권을 만들어 주어, 월출산 남쪽은 백제 시대부터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고 그들을 계몽시킬 수 있었으니, 오사카와 가까운 나라(奈良)에는 왕인의 묘소가 있고 백제의 신사와 절들이 많아 지금도 그 숨결을 느끼게 하고 있다.

호남의 이러한 환경은 그 의식과 사상 또한 다른 지역

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호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사상과 사고(思考)에 있어서도 독특한 의식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호남학의 형성 연원과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호남학은 호남의 풍토와 지리에서 형성된 독자적 학문 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백제와 호남

호남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백제의 문화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신라가 이른바 삼국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이민족 오랑캐를 초청하여 자민족을 정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찬란했던 문화와 정신 유산마저 모조리 짓밟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백제의 의자와왕과 태자는 오랑캐들에게 붙들려 가서, 낙양성 북망산천의 원귀가 되어, 타국 땅의 폐허를 맴돌게 되었으며, 한반도에 넘쳤던 기상마저 꺾여지게 되어, 이때부터 우리는 중국의 지배를 받는 치욕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다.

침략자들은 우리의 국토만 지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망령을 쇠뿔처럼 박아 버려, 소정방이 쳐들어 왔던 바닷가 어귀는 소래 포구가 되었고, 그가 다녀간 절은 내소사로 바뀌었으며 그가 올랐던 산까지 상소산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 명산대천에는 지금도 그들의 마귀가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끝까지 저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을 지키고자 하였던 백제의 정신이다.

백제의 장수 계백은 출정에 앞서 그의 가족 모두를 참살하고 황산벌에서 5천의 결사대와 장렬한 최후를 마쳤으니, 여기에서 그 중·과(衆·寡)를 헤아리지 않고, 이민족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각오로 죽음을 택한 백제의 정신을 보게 된다.

지금 우리는 잔인한 오랑캐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백제의 정신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민족을 초청하여 자민족을 정벌하게 하고, 우리의 영토마저 내어준 신라의 속셈을 본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호남의 정신을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본받는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를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조선조의 사상과 호남의 정신

조선조는 주자학을 이념으로 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해석하고 발전시킨 면이 있다.

중종조 시대에는 새로운 도를 확립하고자 하여, 도학으로서 탐구하였고, 명종·선조 때에는 인간의 본성인 선(善)을 실현하고자 성리학으로서 연구하였으며, 영·정조 시대에는 민권 의식이 성장되어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이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도학을 탐구하게 된 것은, 반정 이후의 혼란한 시대를, 바른 도(道)로써 다스리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에서 그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다. 그 까닭은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 등 이른바 정국공신(靖國功臣)들이 온갖 사욕을 채웠기 때문이다.

유자광은 반정공신을 책정하면서 그의 자식부터 이름을 올려, 자기는 저절로 공신이 되었고 사적 친소(私的親疏)에 따라 공로를 정하고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이를 본 조광조는 공신들의 공훈을 줄여야 한다는 ‘정국공신 삭훈소(靖國功臣 削勳疏)’를 올렸다.

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은 당시 좌상(左相)이었던 신수근(愼守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죽이고, 반정 후에는 그의 딸 신 씨(愼氏)가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 조정이 불안하다고 하여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의 매제 윤여필의 딸을 앉혔다.

그 후, 중종 10년 을해년에 이르러, 기근이 겹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 조정에서는 구언(求言)을 청하기에 이른 다. 구언이란 백성들에게 조정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

하는 일이다.

이때, 무안 군수 유옥, 순창 현감 김정, 담양 부사 박상 등 삼인(三人)은 순창의 강천사 앞 바위 위에 모여, 중종의 본비(本妃), 신 씨를 몰아낸 박원종 등을 처벌하고 다시 왕비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을 청하는 ‘청복고비신씨소(請復故妃愼氏疏)’를 올렸다. 세상 사람들은, 세 분이 상소를 논의하면서 관인을 넣은 도장 주머니를 소나무에 걸었던 그곳을 ‘삼인대(三印臺)’라 부르고, 그 상소를 ‘삼인대상소(三印臺上疏)’라 하였다.

그 내용은 “박원종 등이 반정을 일으키면서 사육을 채우려고, 죄 없는, 임금의 본비(本妃)를 내쳤으니, 그 잘못을 저지른 반정공신들을 처벌하고 신비(愼妃)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박원종이 돌아간 지 5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 상소는 실제로는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훈구대신들의 횡포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 상소가 조정에 이르자 집권 세력들은 이 글을 난언(亂言)이라 하고, 조정의 기강을 문란시켰다 하여 박상, 김정 등을 붙잡아다 매질하고 귀양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때 조광조는 “이 상소는 매우 정당한 의문으로서, 조정의 구언(求言)에 응하여 올린 것인데, 이를 벌하였으니 앞으로 구언(求言)을 청한다면 누가 상소를 올리겠는가” 그러므로 “박상 김정 등에게 죄를 준 대신들을 벌하고, 언로를 막은 저들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상소에서 “언로를 통(通)하게 하느냐 막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언로가 통하면 치안(治安)하고 막히면 난망(亂亡)하는 법이다. 지금 박상 김정 등이 구언(求言)에 응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말이 지나쳤다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인데, 간관(諫官)들은 이들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고 사헌부에서는 그들을 붙들어서 벌을 주었다. 이는 언로를 막는 것이니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힌 저들의 죄를 벌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본 훈구대신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남곤 심정 등이 한밤중에 임금에게, ‘사람들이 역

모를 꾀하였다’는 거짓을 고하여, 그들을 죽이고 귀양을 보내기에 이르렀으니 이 사건이 기묘사화였다.

조광조는 이 사화로 말미암아 능주로 귀양을 오게 되었고, 김식 기준 한충 등은 화를 입고 사사되었다

우리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능주로 귀양을 온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이상은 다시 호남의 정신으로 계승되었고, 산간으로 숨어든 선비들 또한 학문을 연구하여 조선조의 문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능주는 양평손의 고향이었다. 조광조가 자기 마을로 귀양을 오게 되자, 함께 내려와 그를 돌보고 그의 최후를 지켰다. 또한, 그 귀양길에는 삼인대의 상소를 이끌었던 박상이 자기의 상소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고 귀양길로 가는 조광조를 위하여 광주 동쪽 무등산 아래에 있는 분수원(分手院)으로 나와 이별의 술잔을 나누고, 이듬해에 그의 영구(靈柩)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전에 분수원에서 손잡고 헤어졌는데, 소 수레에 실려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네(分手院前曾把手 牛車草草故鄉歸)”라는 시를 남겼다.

이와 같이, 많은 사림이 사화로 말미암아 사사를 당하고, 귀양을 가거나 산림으로 은거함으로써 그 기상은 시들어 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 의지는 호남에서 새로운 이념으로 다시 성장하여 조선조의 문화와 사상을 견인하기에 이른다.

조광조의 최후를 지켰던 양평손의 절의는 그 아들 양응정으로 이어지고, 김인후는 동북으로 귀양 온 최산두에게 학문을 익히면서, 기묘명현인 양산보와 교류하며 사돈을 맺었고 태인의 이항과도 혼사를 이루고 학문을 논하여 조선조의 성리학 전성시대를 열었다. 김인후의 문하에서 정철이 나오고 박상의 문하에서 송순 임억령이 배출되었으며, 사화를 피하여 광주로 내려온 기준의 조카 기대승은 이항과 함께 조선조 성리학을 이끌었다.

의(義)를 숭상하는 호남의 정신은 그 시대에 머물지 않고 외침을 당하여서는 국가를 구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여기고 봉기하기에 나서니 그들이 의병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항의 문인 김천일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우다가 진주성에서 순절하였고, 고경명은 그의 아들 고종후 고인후와 함께 항전하다가 금산에서 최후를 마쳤으며, 박광옥 김덕령 등 호남의 많은 의병이 왜적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다. 의병이란 울바름을 지키고자 싸우는 병사이니 그 의지는 사림의 의리 정신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불의와 맞섰던 사림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의식의 성장과 호남

호남은 백성들이 가장 혹심한 수탈을 당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농노(農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 그 농토는 북도의 부안 고창, 남도의 강진 해남이 많았으나 그곳의 농민들은 지주들의 착취에 시달려 농노(農奴)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폐한 백성들을 보고 홀민(恤民) 의식이 생기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유형원(1622~1673)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토지를 균등하게 소유하자고 하였다. 그 제도를 균전제라 한다. 그러나 유형원이 생각하였던 토지 제도의 개혁은 이념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 까닭은 그만큼 지주들의 힘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유형원보다 1백여 년이 지나, 강진으로 유배 온 정약용(1762~1838)은 그곳 사람들이 기름진 옥토와 풍부한 물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수탈을 당하여 굶어 죽는 현실을 보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아치는 백성들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고, 모든 제도는 백성을 위한 체제로서 다시 구성하여,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탕론(湯論)」 「원정(原政)」 「원목(原牧)」과 같은 글에서, ‘현자(賢者)가 재직(在職)하고 능자(能者)가 재위(在位)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아래의 백성들로부터 추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순(順)의 질서이며, 아버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지금의 체제는 백성의 뜻을 거스르는 역(逆)의 질서라 하였다. 그 명

제가 곧 ‘下而上 順也, 上而下 逆也’이다.

이와 같은 구상은 풍부한 물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수탈을 견디지 못하여, 그 삶 자체를 포기하는 처참한 호남의 현실을 보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써 바꾸지 않으면 모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극한 상황에서 창안된 지혜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현실에 실현키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택한 마지막의 수단은 민중 혁명뿐이었다. 그렇지만 그 혁명마저 실패하여 조선조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호남에서 형성된 의식과 사상을 본다. 오랑캐의 내침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순절의 길을 택하였던 백제의 정신, 조선조 초,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利)보다 의(義)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사림의 의지, 만물의 본질과 형상, 그 진실체(眞實體)의 이(理)와 그 현상의 기(氣)를 하나로 여겼던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 의(義)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의와 맞섰던 의병의 역사,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이상 국가를 구상하였던 근대 지향(近代志向)의 지혜, 어떤 폭력에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목숨을 던졌던 현대의 민주화 운동. 이와 같은 호남의 의식과 사상의 추이(推移)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호남인의 정신이 맥맥하게 흘러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호남학을 탄생시키는 근원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학의 연구와 그 진흥으로서 한국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호남학 연구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호남의 문헌과 자료의 발굴, 그 번역과 사상적 특질에 대한 체계적 정리는 물론, 호남의 역사와 그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호남인의 사유와 그 형태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밝혀 현대적 지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호남 문헌의 수집과 번역뿐 아니라, 호남의 종교 사상 문화를 아우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앞날에 대한 기대가 크다. ☺

호남의 정신사와 비판적 지식인들

고영진 광주대학교 교수

호남 정신사의 특징

호남의 정신사를 관통하는 특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뚜렷한 명분과 자주 의식이다. 고려 대몽항쟁기에 외세인 몽고와 외세 의존적인 고려 왕실에 저항해서 삼별초가 항쟁을 벌였을 때 전라도 서·남해안의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호남인의 자주정신은 이후에도 국난을 당할 때마다 표출되었다.

둘째 절의·비판·실천 정신이다. 조선 시대 호남의 정체성을 형성한 호남 사립들은 대체로 고려 말의 불사이군과 세조의 왕위 찬탈 반대, 4대 사화 등을 계기로 전라도로 이주해 온 집안의 후예들이 많았다. 중종 대 소릉복위(昭陵復位)와 신비복위소(愼妃復位疏)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훈구에 대항하여 사립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김인후·유희춘·기대승·이항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선조 초 사립정치를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대의(大義)를 위한 희생정신이다. 이는 수많은 의병장의 순절을 가져온 임란의병, 반제·반봉건의 깃발을 높이 올린 동학농민전쟁, 일제의 조선 병합 시기를 늦추기까지 한 한말 의병전쟁, 식민지 시기 3대 민족운동의 하나였던 광주학생독립운동,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의 모범이 된 5·18광주민중항쟁 등에서 잘 드러난다.

넷째 다양성과 개방성·민중성이다. 호남 지역은 일찍



조광조 적려유허추모비

부터 해양을 지향했으며 동아시아중해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한과 백제도 해양 제국이었으며 바닷길을 통해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장보고의 해상 왕국에서 볼 수 있듯이 호남 지역은 고대부터 개방적·진취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 시대 호남사립은 기호·영남사립과 활발한 학문 교류를 벌여 호남 유학이 이론적으로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같은 학파 또는 학파를 초월해 수준 높은 토론과 논쟁을 벌임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다양성과 개방성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호남 실학을 꽃피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밖에 수많은 문장과 시인을 배출한 시가문학, 동편제와 서편제로 대표되는 판소리, 이 지역의 독특한 전통 화풍인 남종화 등 호남의 예술과, 민족 종교인 천도교와 증산교·원불교, 그리고 근·현대 호남의 민족 운동 등도 모두 다양성과 개방성·민중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릉복위 주장과 신비복위소

호남의 정신사적 특징 가운데 특히 절의·비판·실천 정신과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이 잘 드러나는 것이 호남사립이다. 호남사립은 여말 선초 정치적 격변기에 절의를



학포 양평손의 서재 '학포당'

지키거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은 의리명분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여기에 16세기 전반 소릉복위 주장과 신비복위소 등을 통해 비판적·실천적 성격이 더해졌다.

소릉은 단종의 어머니이자 문종의 부인이었던 현덕왕후의 능으로 단종이 폐위되면서 폐릉되었다. 소릉복위는 그로부터 21년 후인 1478년(성종 9)에 남효온이 상소에서 처음 주장하였다. 소릉을 쫓아낸 것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성리학적 명분에 어긋나므로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평생 은둔과 방황이라는 고난에 찬 삶을 살아야 했다. 소릉복위는 10여 년 뒤 남효온의 후배였던 김일손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도 이 일로 인해 갑자사화 때 능지처사(凌遲處死)를 당하였다.

소릉복위는 중종 대 와서 1512년(중종 7) 호남 사립인 소세양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성종과 연산군 대와는 달리 이때 조정에서는 활발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반대파가 다수였으나 점차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듬해 종묘의 소나무 두 그루에 벼락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결국 소릉복위는 성사되었다.

신비복위소는 소릉복위가 이루어지고 2년 뒤인 1515년 담양 부사 박상과 순창 군수 김정, 무안 현감 유옥이 순창 강천사 삼인대(三印臺)에 모여 폐비 신씨의 복위를 요청한 것이다. 폐비 신씨는 중종의 첫 번째 왕비로 중종반정 때 중종의 장인이자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던 부친 신수근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고 살해되자 반정 세력에 의해 강제로 폐출당하였다.

그런데 폐비 신씨의 뒤를 이어 왕비가 되었던 장경왕후가 원자를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천동·벼락 등 재변이 계속 일어나자 중종은 구언(求言) 교지를 내리고, 여기에 답하여 박상과 김정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쫓겨난 폐비 신씨의 복위와 반정을 주도했던 박원종과 유순정·성



정암 조광조, 눌재 박상, 고산 윤선도(왼쪽부터)

희안 등 세 공신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들의 상소는 조정에 큰 반향을 가져왔다. 신비 복위를 주장한 이들의 행위는 장경왕후를 무시하는 태도로서 종묘 사직의 안위와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추문(推問)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박상은 남평으로, 김정은 보은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옥은 노모 부양을 위해 상소문에는 이름을 넣지 않아 처벌을 면하였다.

이 문제는 몇 달 뒤 조광조에 의해 다시 점화되었다. 조광조는 구언에 응해 상소한 두 사람을 처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 대사헌과 대사간을 탄핵하고 사헌부·사간원의 대간들을 모두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재상이 혹 죄 주기를 청해도 대간은 구제하여 풀어 주어서 언로를 넓혀야 하는데 도리어 스스로 언로를 훼손하여 그 직분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간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광조의 문제 제기는 조정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치열한 논쟁 끝에 양사의 대간들이 대폭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박상과 김정의 석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결국 이듬해 5월 두 사람은 석방되었다.

폐비 신씨의 복위는 종종 대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박상·김정의 신비복위소는 사림들이 훈척에 대항하여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사림과 대간들의 언론이 공론

(公論)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백여 년이 지난 1739년(영조 15) 폐비 신씨는 단경왕후로 복위되었다.

결국 소릉복위 주장과 신비복위소는 세조 대와 연산군 대의 정치적 유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호남사림들의 모습과 행동은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호남의 비판적 지식인들

‘비판적 지식인’은 사르트르나 한완상 등이 정의한 ‘(비판적·실천적) 지식인’ 또는 미셸 푸코가 말한 ‘파레시아스트’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지식인’이란 용어는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퓔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드레퓔스 사건’을 계기로 비판적이고 실천적·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사르트르와 한완상, 푸코 등은 이러한 지적 전통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양가주망(engagement)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실천적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의미한다.

‘비판적 지식인’은 조선시대 지성사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조선의 건국이나 사림 정권의 성립, 실학의 등장 등이 모두 이 비판적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조선이 자기 정화 과정을 거치

면서 유교 국가로서 500여 년을 지속한 데에도 이 비판적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지식인’은 호남의 정신사를 살펴보는 데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호남사림들이 비판적·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시인으로 익숙한 윤선도도 호남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존망의 위기까지 몰렸던 시기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윤선도 역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그는 여러 상소에서 대북의 영수로 광해군 대 최고 권력자였던 이이첨, 인조반정 공신으로 그 손자가 효종의 부마이기도 했던 척신 원두표, 효종 대 중국에까지 군약신강(君弱臣強)으로 소문났던 송시열 등 당대 권력자들의 문제점을 대놓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5년 동안의 대군사부(大君師傅) 시절을 포함해 총 10년에 못 미치는 관직 생활과 3년에 걸친 15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삶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니 파란만장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할 것이다.

당시 윤선도의 생각과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그가 ‘감언지사(敢言之士)’ 그리고 ‘직언지사(直言之士)’라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반드시 화가 닥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하고 나아가 그 말을 빙빙 둘러서가 아니라 기탄없이 말하는 윤선도의 모습과 행동은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벼슬에 연연하거나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고 의리에 따라 직언하고 감언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 이는 윤선도가 평생 행동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글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시문 대부분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각오를 담아내고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과 서로 위로하고, 그러다가 삶을 마친 그들을 추모하고 그들이 자신처럼 경륜을 다 펼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내용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상, 김정, 최부, 기준, 최산두, 윤선도… 이들 말고도 호남에는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성리학의 이념을 배우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였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왕에게 직언과 감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절의·비판·실천 정신은 대의를 위한 희생 정신으로 이어져 이들로 하여금 국가가 위협에 처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많은 사림 의병장들과 의병들을 전쟁터에 나가 순절하게 만들었다. 호남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실천적 행동은 호남뿐만 아니라 조선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물줄기를 바꾸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



윤선도가 머물렀던 동천석실



나주 풍산 홍씨 『석애 문중 음식보』

훼손·멸실 위기 민간 기록 유산, 문화재로 지정되다

나주 풍산 홍씨 석애 문중, 영광 동래 정씨 정홍연 후손가 고문서

조광현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민간에 흩어져 관리되지 못하고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기록유산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손길로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6만 6천여 점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목록화 하고 있으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자료적 가치를 발견하

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나주와 영광 지역의 문중에서 관리되어 온 기록 유산이 목록화 되어 2023년 상반기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나주 풍산 홍씨 석애 문중과 영광 동래 정씨 정홍연 후손가가 그 주인공이다. 두 문중 모두 소장한 대부분의 자료가 그대로 지정되었다.

나주 풍산 홍씨 석애 문중은 총 90점의 고문서와 고서가 지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음식보는 18세기 중반 한글 조리서로서 매우 희귀한 자료임을 인정받았다. 영광 동래 정씨 정홍연 후손가는 127점의 자료가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조선 시대 제도사와 향촌 사회사 연구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이다.

이 밖에도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와 강진 군자서원 자료의 경우에도 2021년에 모두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먼지 묻은 기록 유산을 소중히 모셔 와 상세 목록화를 추진하고 자료적 가치를 고증하며, 문화재로서 인정받기까지의 꾀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추진해 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보물 1건 3점을 비롯하여 시·도 지정 문화재 등 18건 940점을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자료가 승격 또는 지정을 추진 중에 있거나 준비 중이다. 6



영광 동래 정씨 정홍연의 시문집 『죽창집』과 임명 문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연구사업 1차 년도인 2022년 76개소의 누정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영상, 사진 촬영 작업을 했다.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 연구 사상과 풍류의 거처를 탐색하다

조일형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누정·원림은 예부터 선인들의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며 교육과 학업의 공간이자 정치 토론의 장이었다. 특히 호남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울려 수많은 누정·원림이 지어졌다. 각각의 누정·원림에는 당대를 살았던 선비들의 삶과 사상, 시대정신이 깃들어 있기에 그 의미는 매우 깊다고 하겠다. 그동안 누정 건립이나 교유 인물 연구, 누정 현판 번역, 건축 양식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2022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

광부의 지원을 받아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보완과 호남 누정·원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집대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제4차 산업 혁명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누정 연구 성과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게 되었다. 2022년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 연구 사업’의 사업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1. 2022년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 연구 사업 내용

사업 내용	비고
호남 지역 누정 총목록 작성	현존, 비현존
광주·전주 포함 70개소 누정 영상 및 사진 촬영	2분 내외 영상, 4천만 화소 정밀 촬영
누정 해제	일반, 유산 가치, 건축, 콘텐츠 활용 등 4개 분야
누정 현판 탈초 및 정서	150,000자 이상
누정 현판 번역	시문, 기문, 상량문 등 번역 전문가의 현대적 번역

표 2. 호남 지역 누정 총 목록
(광주광역시, 전남 22개 시군, 전북 14개 시군)

지역	누정 수(현존)	누정 수(비현존)	총계
전남	747	1,088	1,835
전북	278	284	562
총계	1,025	1,372	2,397

표 3. 영상 및 사진 촬영, 누정 해제, 탈초 및 정서, 번역
(광주광역시, 전주시, 영광군(일부))

사업 내용	목표	성과	비고
영상 촬영	70개소	76개소	2분 내외
누정 현판 사진 촬영	1,600컷	1,732컷	4천만 화소
누정 해제	6,000매	6,000매	4개 분야
현판 탈초 및 정서	150,000자	190,000자	시판, 기문, 상량문 등
현판 번역	2,100매	전주 1,300매 광주 3,000매	광주 44개소 전주 16개소

2022년 사업 성과를 표 2와 표 3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위 표와 같이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 연구 사업’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개선하고 멸실·훼손되어가는 호남 지역 누정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차년도에는 76개소 누정을 영상으로 담고 누정

에 걸려 있는 모든 현판을 고화질로 사진 촬영하였다. 초서는 탈초를 거쳐 정서하였으며 번역도 추진하였다. 또 각 누정마다 4개 분야(일반, 문화유산 가치, 건축학, 콘텐츠 활용)로 해제를 추진하여 향후 호남 누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



허소, <무이구곡도10폭병풍>, 1929년, 종이에 엮은 색, 각 65.5×32.2cm, 보성 죽곡정사 기탁 자료

옛 글씨와 그림 모으고 새 콘텐츠 개발 호남 서화 연구

김소영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호남 서화 연구 사업은 전통 서화 관련 신규 과제 및 활용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서화 자료를 집대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시작되었다. 최근 호남의 서화 자료가 본원에 다수 기증·기탁됨에 따라 호남 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전통 서화 자료의 수집과 DB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는 2022년 “호남 서화, 한국학의 가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호남 서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논의를 위해 호남 서화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주지하듯이 호남 지역은 조선 시대부터 뚜렷한 전통을 형성하며 서화를 발전시켜 왔다. 16세기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을 비롯하여 18세기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와 아들 연옹(蓮翁) 윤덕희(尹德熙, 1685~1766), 손자인 청고(靑阜) 윤용(尹溶, 1708~1740) 일가와, 조선 말기의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8~1893), 근대의 미산(米山) 허형(許滢, 1862~1938)을 거쳐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1~1977)과 남농(南農) 허건(許健, 1908~1987)으로 계승된 서화단의 활동은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통 서화의 계승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고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호남에는 더 많은 서화가들의 활약이 있었으며 호남 전통 서화단은 훨씬 더 풍성하였다. 잊히거나 발굴되지 못한 많은 서화가들이 연구되지 못한 채 관련 자료가 멸실·훼손되는 중이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전통 서화 및 서화가 자료와 작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역할 요구를 심포지엄을 통해 확인하였다.

현재 전통 서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서화 연구



호남서화연구 심포지엄, 한국학호남진흥원 주최 주관, 국립광주박물관 소강당, 2022. 10. 20.

향토사가와 연구자들 손때 묻은 귀한 자료

2만여 권 모은 보물 창고, 호남 국학 기초자료센터 역할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향토사자료실에 대한 소개 겸 호남 지역 자료에 대한 글 요청을 받고, 향토사자료실을 ‘보고’, ‘보물’로 여기고 있다는데 감사하면서 글을 써본다고는 했지만, 웬지 저어 된다. 날씨 탓만은 아니다.

40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늦게 입문한 역사학의 길에서 맞닥뜨린 사연이다. 고향 장흥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 그 책 어쨌어’ ‘응 지금 보고 있는디. 으째서.’ ‘다행이구만. 빨리 가져와야 겠네’ ‘그래, 먼 일이어’. ‘경찰서에서 난리가 났어. 으쩌든 바로 좀 갖고 와’

전화를 건 이는 ‘자웅(장흥)’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죽마고우였다. 아버지 대를 이어 시장통에서. 지금의 정남진 토요일 공연 무대 자리쯤이다. ‘고물’을 수집하는 직원(일꾼)들이 군내 곳곳을 돌아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고철’이나 ‘가전제품’, ‘헌책’, ‘옷가지’ 등을 가져오면, 빨래비누나 옛을 대신 주고 받아 와서, 시장통 고물상에 들러 고물은 납품하고 돈으로 받아가는 품팔이였다.

남면인가 어느 시골 동네 할머니께서 ‘헌책’을 한 뭉치 들고 와 가져가라 하기에 옛 두어 토막 드리고 받아 왔던 게 화근이 되었다. 직원이 놓고 간 ‘헌책’을 떠들어 보니 원통 한자 투성이라 바로 닫아 버렸다. 한문본 전적이었던 셈이다. 며칠 뒤 한구석에 놓여 있는 그 ‘고물’을 보다가 친구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좋게 직장 생활

하다가 늦게사 먼 대학이냐고 핀잔을 하긴 했지만, ‘역사’ 어찌고 한 것 같아서 혹 필요할지 모르니 와서 보라는 것. 한달음에 달려 갔다. 장흥 출신 선비들의 문집이었다. 통째로 들고 와서 무안 청계의 자취방에 놓고서 이따금 들 여다 보곤 했는데, 급작스런 전화가 온 것.

그 사연은 이렇다. 헌책 고물을 내어 준 할머니의 자녀들이 주말인가 시골에 왔단다. 그들은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옛’ 이야기가 나오다가, ‘헌책’과 바꾼 이야기를 그 할머니는 자녀들에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이다. 할머니가 내다 버린 듯 ‘옛’과 바꾸었던 그 ‘고물 헌책’을, 자녀들은 ‘집안의 가보’인데, 어느 날 불한당이 와서 그네들의 어머니를 겁박하여 절취해 가버렸다는 것으로 윤색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버린 것이다. 경찰서에서 출두 연락이 와서 가 보니 그리 되어 있었고, 어쨌든 현품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하니 급하게 연락을 했던 것.

늦깎이 공부를 한다는 친구를 생각해 주었던 고마움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일꾼은 절취자, 그것도 강제로 훔친. 고물상 주인인 친구는 절취한 직원의 회사 대표이자 절취물 취득 장물애비, 김희태는 장물 취득 보관자. ‘허! 세상이란 이렇구만.’ 전적을 돌려 주고, 그때는 한잔씩을 할 때라 그 친구와 마주 앉아 권커니 잣커니 밤이 섰다.



향토사자료실에는 성춘경, 박래경 등 호남 국학연구의 선구자들이 평생 모은 자료들도 있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모아온 귀중한 자료들을 기증했다. 김희태 향토사 자료(목포 부영아파트 서재, 2018)

그때 그 ‘고물 헌책’은 20여 책이었다. 주로 ‘문집류’로 기억된다. 처음 가져 오자마자 복사를 해 두었다. 목포대학교 앞에서 한동안 복사를 전담하다시피 했던 ‘통대사’ 복사센터. 그때 사진도 찍어 두었던 기억이 난다. 그냥 내가 소장하려니 하고 표지만 찍었을 게다. 그 사진도 찾아 봐야겠다.

자료를 수집하거나 대출해 오면 습관적으로 복사를 한다. 지금은 디카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쉽게 촬영하고 컴퓨터 화면으로 띄워 볼 수 있지만, 3~40여 년 전 그 시절에는 열람만 하려 해도 몇 번을 오가야 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향토사자료실을 소개하면서 조금은 길게 엉뚱한 이야기로 실마리를 열었다. 그런데 그때 ‘장물’ 취급되었던 그 문집류의 복사본이 이 향토사자료실에 있어서이다. ‘집안의 가보’로 둔갑하여 경찰서까지 넘

나들었던 그 자료의 원본은 지금도 그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은 복사본을 통하여 한국학호남진흥원 향토사자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한국학호남진흥원 누리집에는 ‘열린자료실’이라 하였다.

보통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는 원본을 귀히 여긴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원본 중심으로만 볼 수 없다. 수많은 고전 문집 등 전적류는 영인본을 통하여 조사나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보면 호남 곳곳의 자료들을 사본으로라도 모은다면 그야말로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 저



2021년 한국학호남진흥원 도서 기증의 날에 열린 성춘경 선생님 도서 기증식과 기증 도서실(위)



‘고물 헌책’ ‘문집 전적’ 사연은 1983년이다.

장흥과 강진의 문집류에 대해서도 생각이 난다. 장흥의 문집 사본은 6백여 권쯤 될 것이다. 1996년인가, 장흥문화원에서 문집 수집과 함께 장흥 문집 해제를 책으로 냈는데 해제 작업을 필자에게 맡겨 주었다. 당시 청헌 이상구 원장님과 화산 윤수옥 부원장님은 문립 고을의 자산인 문집류 수집을 하여 사본을 제작하였는데, 장흥 문집 사본 일습을 통째로 제공해 주신 것이다. 공부를 하라는 격려이자 배려일 것이다. 그 문집 사본이 향토사자료실에 있다. 강진 문집 수집과 해제 작업도 사연이 있다.

공공으로 간행된 문집류 자료도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표점영인한국문집총간 350책, 속집 150책. 경인문화사의 한국문집총서 초창기의 전라도 문집(400~450집) 등. 지금은 디지털 이미지를 컴퓨터는 물론 오가는 버스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볼 수 있지만, 초창기 발간 시에는 보기가 어려웠다.

헌책과 문집 전적으로 실마리를 열었지만, 향토사 자료는 다양하다. 처음 ‘근현대사자료’라 했는데 웬지 낯설

어 ‘향토사자료’라 명칭을 제안했다. 근래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더 성행된 듯하지만, 기관 명칭과 관련하여 ‘호남학’, ‘호남국학’이라는 용어에 ‘지역학’의 의미가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향토사자료’라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학 그러면 무언가 학문적이고 차원이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향토사’, ‘향토학’ 그러면 누군들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이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흔한 듯 일상적인 자료들도 모으고 정리한다면 미래의 역사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때를 빼고 광을 낸다면, 그게 바로 나의 생활사요, 우리 지역의 문화 자산이요, 지역학이자 호남학이 될 것이기에.



보통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는 원본을 귀히 여긴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원본 중심으로만 볼 수 없다. 수많은 고전 문집 등 전적류는 영인본을 통하여 조사나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보면 호남 곳곳의 자료들을 사본으로라도 모은다면 그야말로 ‘보물 전당’이 될 것이다.

향토사자료실 도서 가운데 성춘경 선생님 자료가 있다. 평생을 전라남도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봉직하시면서 전남 문화유산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신 분이다. 특히 불교 미술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분이다. 필자의 문화재 은사님이기도 하신다. 평생 보시고 모은 전남 문화유산 자료, 불교 미술 분야 자료의 기증에 대해 논의를 해 오셔서 한국학호남진흥원으로 연결되었다. 자식같은 자료들에 대해 논의하면서 울먹이시던 그날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 창립 회장을 하였고, 마침 천득염 원장님도 남불회 회원이자 회장을 하였던 터라 더 귀한 자리가 되었다.

또 한 분야의 자료는 남도의 민속학을 일구셨던 박래경 선생님 자료이다.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태동된 향토문화개발협의회(향문화)의 창립 회원이자 남도 민속 연구의 산파역을 하셨던 분이다. 교직에 계시면서 전국의 향토사와 민속 문화 자료는 물론 문화유산과 생활사 자료들을 정성을 다해 모으셨는데, 그 가족(박광렬)이 유품으로 남은 자료를 기증한 것이다. 향문화는 1972년 장성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광주에서 전국 유수의 향토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 50여 년에 걸친 향토사와 민속 생활사 자료들이 즐비하다. 학술지 <향토문화>는 2022년 41호를 발간하였다.

초대 원장 이종범 교수님의 기증 도서는 근대사 자료가 많다. 2대 원장 천득염 교수님의 자료는 건축학과 문화유

산 관련 자료이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한국학호남진흥원 임직원들이 자료를 챙겨서 향토사 자료실을 살지게 하고 있다.

첫머리에서 글쓰기가 저어된다고 언급하였다. 향토사 자료실을 소개한 것은 좋지만, 왜 나에게 글을 의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 자료실의 첫 단추를 꿰었고, 필자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전인수’와 ‘내 보이려’ 하는 쪽으로 흐를 염려도 있어서이다. 그래도 글을 쓰고자 한 것은 향토사자료실이 호남 국학 연구에 있어 또 다른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서사(敍事)로 풀어 보자. 수도권에서 전남의 어느 마을 조사를 하려는 연구자가 있다. 그는 전라남도지는 물론 해당 지역의 군사, 면지, 마을 유래지, 역사 인물 행적, 문집과 기록 자료, 민속과 설화 자료, 고가옥 자료, 사찰 자료, 문화유산 자료 등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 대부분이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있다면, 당연히 호남진흥원 향토사자료실을 찾을 것이다. 이처럼 호남 국학의 기초 자료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모아진 2만여 권의 향토사 자료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5, 제6의 기증자가 있다면, 향토사 자료가 늘어난다면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향토사자료실은 ‘호남 국학 보물 창고’에서 나아가 ‘호남 국학 보물 전당’이 될 것이다. ♣

미래를 내다본 리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억



‘행동하는 양심’이란 어록이 새겨진 김대중 대통령 동상. 뒤로 생가가 보인다.

고석규 목포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한국인들이여, 이제야말로 「감사합니다. 김대중」이라고 말하자”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2003년 1월 8일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미국UCLA 교수)가 일본 시사지 사피오(SAPIO)에 쓴 칼럼에서 한 말이다. 그 글은 “단 5년만에 V자 회복을 달성한 희대의 名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결코 돌팔매질해서는 안 된다”로 시작한다. 오마에 겐이치는 누구인가? 불과 4년 전인 1999년 7월에 역시 같은 잡지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경제가 재기할 수 없는 이유」란 제목으로 한국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다.¹

어떻게 불과 4년만에 이렇게 판단이 100% 달라졌을까?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바른 기억이 놓일 곳이다.

지난 5월 어느 날, 신안군의 신의도와 하의도를 찾았다. 섬 지역의 작은 학교인 신의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 특강을 참관하러 갔었다. 전교생이 30명 정도인 작은 학교였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의 열정과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는 작은 학교를 새삼 다시 보게 했다. 그러면서 바로 옆 섬인 하의도에 가고 싶어졌다. 하의도가

어떤 섬인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다소 쓸쓸해 보였지만, 정기가 서려 있는 생가를 둘러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꿈을 꾸게 하는 리더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는 지도자의 자질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즉 소어(笑語:웃는 얼굴과 말투로), 활달(豁達:도량이 크고 잔일에 구애받지 않으며), 청수(聽受:다른 사람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임)였다. 말하자면, 긍정의 리더, 포용의 리더, 상생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빠진 게 있다. 꿈을 꾸게 하는 리더이다. 지도력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고 ‘신바람’이 나서 일하게 만드는 능력인데, 그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희망, 꿈이다. 꿈이 있어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떤 꿈을 꾸게 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비전, 즉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에 다시 놀란다. 집권 기간 동안 늘 힘주어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서 큰소리치며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되었으니 그 혜안에 놀랄 뿐이다.

김대중 정부의 업적으로는 물론 IMF 조기 극복이 무엇보다 컸지만, 그것의 토대가 되면서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준 성과들이 있었다. 초고속 인터넷, 이동 통신 인프라 및 가입자 수, 반도체, 휴대전화 등 IT(정보기술) 인프라와 IT산업은 세계의 자랑거리이다. NHN이나 엔씨소프트, 티맥스소프트 등도 모두 이때 창업했다. 나로호가 쏘아올린 우주 강국의 싹, 그리고 놀랄 만큼 성장한 한류까지... 이 모든 것들의 출발선에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놓여 있었다.²

IMF 조기 극복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OECD 가입=선진국”

이라면서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경제 국치’를 겪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개혁에 착수하였다. 대한민국은 IT산업 장려 정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 IMF에 18억 달러를 상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금융 위기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었다.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 통화 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는 이렇게 조기 종료되었다. 불과 3년 8개월 남짓 만이었다.

벤처 대통령, IT 세계 챔피언을 만든다

미래 먹거리의 씨앗을 뿌려놓은 김대중 정부 5년은 한편의 드라마로 불린다. 이른바 ‘DJ 드라마’의 한 가운데에 IT와 벤처기업 육성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IT 선진화의 청사진을 그리며 정책을 구체화했다. 현재 한국은 ‘IT 코리아’, “IT 분야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다. 한국을 ‘IT 강국’으로 이끄는 데 DJ 및 국민의 정부가 있었다는 것도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IT 신화의 숨은 원동력은 한국 정부”라 하듯이,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IT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63만 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자는 5년 만에 2600만 명을 돌파했고, 700만 명에 못 미쳤던 이동 전화 가입자는 무려 3200만 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정보 통신 분야 무역 흑자는 1997년 94억 달러에서 2002년 168억 달러까지 늘어 5년 내내 무역 수지의 최대 효자였다. 이와 같은 IT 인프라 구축은 인터넷 산업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기틀을 다졌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기치 아래, 기업·국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였다.

이와 함께 벤처 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섰다. ‘벤처 대통



DJ 어록을 담은 전시물 (출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취임식에서 “벤처 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이라고 표현하며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벤처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내세워 벤처 시장을 활성화했고, 국민을 벤처 투자 열기로 몰아넣었다. 벤처 특별법 제정, 벤처 촉진 지구 도입, 스톡옵션 제 확산, 벤처 캐피탈 육성 등을 통해 1999년 IT 벤처 붐을 일으켰고,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도 활기를 띠었다.³

벤처 육성 전략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맞물려 짧은 기간에 IT산업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은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고 체계가 분명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DJ 정부가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IT·벤처 산업을 활성화시킨 데에는, 우연이 아니라, DJ의 철학에 기인한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류의 기원을 열다

한류는 ‘한국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말한다. 25년 전인 1998년 10월, 국민의 정부가 일본 영화와 일본어판 만화책 및 잡지의 ‘상륙’을 허

가함으로써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관한 최초의 ‘원칙적 개방’을 선언하였다. 이때만 해도 자칫 개방으로 인하여 문화 식민지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컸다. 그렇지만 우려는 우려로 그쳤다. 오히려 한류가 성장하면서 문화 개방이 문화 산업계에 효자가 되는 반전이 일어났다. 한때 위축될 듯하던 한국 영화 시장은 오히려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이런 한류의 기원을 1988년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에서 찾는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명백하게 선언하였다. 그는 “21세기 한국에서 신기술과 문화 산업이 나라의 근간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정식으로 ‘문화 건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방송위원회 신설(2000. 2. 14)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199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1) 등 각종 정책 지원 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재원 및 지원 제도 등을 가시적으로 확충하였다. 이와같이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문화 산업은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 핵심 생산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초기 한류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드라마를 통해 나

타났다. 1998년부터 한국의 대중음악 즉 아이돌 그룹이 이끄는 K-POP이 일본,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한류 시대를 열었다. 드라마들도 중국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더니 <대장금>(2003)이 큰 물결을 일으켰다. <대장금>은 드라마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렸다는 점에서 더 큰 역할을 하였다. <겨울연가>(2002)는 일본에서, <풀하우스>(2004)는 아시아에서 한류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한류는 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휘저으면서 한국 문화 산업의 성공을 이끌고 있다. ‘한류’는 끊임없이 변화·성장해 갔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K-POP’의 선풍적인 인기로 지역적인 제약도 뛰어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2012)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한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동북아시아, 중동, 유럽, 북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소비되고 있다.

2020년 9월 미국 빌보드의 싱글차트인 ‘핫 100’의 1위에 오르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BTS(방탄소년단)’ 현상, 그리고 같은 해 2월 작품상 등 아카데미상을 4개나 거머쥔 영화 ‘기생충’은 우리의 문화 지형을 또 한번 크게 바꿔 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9월 12일, K-드라마 ‘오징어게임’까지 에미상 남우주연상, 감독상 등 6관왕에 올라 이른바 ‘한류 트라이앵글’을 완성하였다.

우주 강국의 시대도 열었다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런 인식이 과학 기술 체제 전반에 대한 변혁을 일으켰고, 나아가 현재의 국가 과학 기술 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우주 산업 육성을 시작한 것도 DJ였다. 나로호 발사의 숨은 공로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1999년에 출범시켰다. 알다시피 KAI는 T-50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등 국내 항공 및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나로호

개발에서도 추력기 시스템을 제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01년 12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6T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6T 정책은 IT, BT, NT 이외에 ET(환경공학 기술), CT(문화 콘텐츠 기술) 등을 추가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기에 ST(우주 항공 기술)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인식

김대중 대통령은 눈앞의 시장 이익과 미래를 내다보는 지원책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배치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는 요즘 얘기하는 이른바 양손잡이(Ambidexterity) 조직 이론을 일찍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양손잡이란 ‘점진적 개선(Exploit)’과 ‘근본적 혁신(Explore)’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뜻인데, 이는 구글 같은 글로벌 SW 선도 기업의 혁신 전략이다.⁵

이런 혁신 전략은 DJ의 어록으로 자주 언급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인식”이란 말 안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은 DJ의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라는 어록과 함께 참 리더의 모습을 올곧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DJ의 해안이 열어 준 미래 먹거리로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 뚝뚝하게 큰소리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대중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

1. 전문 번역은 기획재정부 기획총괄과 제공. 도쿄 이병선 특파원, “‘고맙다 김대중’이라 말하라.”(문화일보, 2003.01.10.) 참조.
 2. 이 글의 작성에는 신화수 기자의 「‘국민의 정부’ IT 정책 결산」(전자신문, 2003.02.24.); 이강봉 위원의 「김대중 정부, IT 산업 지원에 올인」(The Science Times, 2008.02.04.); 이대희 교수의 「[DT 시론] IT 강국 토대 닦은 김대중 전 대통령」(디지털타임스, 2009.08.23.); 「IT 산업 20년 전」 중 이대은 기자의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5년’을 되돌아보다」(컴퓨터월드, 2022.08.31.); 「김대중 정부 벤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다」(컴퓨터월드, 2022.09.30.) 등의 기사를 참고하였다.
 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30주년 백서』(2019)
 4. 「역사가 된 과학 대통령 김대중의 업적」(동아시아인스, 2023.07.05.)
 5. 유재홍·김준연, 「글로벌SW선도기업의 혁신전략 - 구글의 Digital Culture와 양손잡이 DNA」(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2015-014, 2016.01.05.)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
서적·간행물·자료집

**광주·화순·영암 향약 자료
6권 간행 및 배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향약 자료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에 광주, 화순, 영암, 장흥 등을 조사하여 1,000여 건을 수집하였고, 2022년에는 남원, 보성, 무안, 순천 등지를 조사하여 1,000여 건을 수집하였으며, 2023년에는 담양, 해남, 강진 등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1,000여 건을 수집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그 결과물로 『광주향약1- 부용정 등』, 『광주향약 2- 양과정 上』, 『광주향약 3- 양과정 下』, 『영암향약 1- 영보정 등』, 『영암향약 2- 망호정 上』, 『화순향약 1- 부춘면약』 등 6권을 발간하고

350여 곳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향약이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위해 만들어진 향촌의 규약을 말한다. 공동체 문화유산인 호남 지역 향약 자료는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문 이미지뿐만 아니라 해설문, 그리고 탈초문 및 번역문을 넣은 자료집을 만들어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우수한 자료가 어느 정도 집적되면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고자 한다. <담당 연구원 : 권수용>

글빛 향내 그윽한 ‘호남학 산책’ 7권의 책으로 발간

호남학 전문가들의 참여로 호남의 전통 자산과 호남인의 향기를 담은 글을 대중과 소통하는 ‘호남학 산책’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랑받는 대표 브랜드다. “우리 겨레, 우리 고장의 사상 문화, 생활 지혜를 밝히는 글빛 향내를 배달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홈페이지와 메일링을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내용과 관점을 지닌 310여 편의 글을 소개했고, 호남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학 산책>의 인기 있는 글들을 주제별로 모아 『풍경의 기억』(고석규), 『고문서와 옛 편지』(김기림), 『명시 초대석』(김창호), 『맛기행』(김준), 『문화재 창』(김희태), 『민속의 재



발견』(이윤선), 『미지의 초상』(박해현) 등 7권의 책을 발간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새로운 주제와 필진을 발굴해 ‘호남학산책’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담당 연구원 : 나상필>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
강연회·콜로키움·학술대회

마한 역사 재조명 ‘호남학 콜로키움’ 8회 개최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최근 마한을 주제로 주최한 8회의 ‘호남학 콜로키움’이 막을 내렸다. ‘호남학 콜로키움’은 전문가 및 시·도민들의 마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고, 호남의 모태가 되는 마한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지난해 4회에 걸쳐 마한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의 문헌 자료와 영산강 유역의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론했던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이어 금년에는 마한 역사 관련 주제를 새롭게 선정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호남학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호남 지역 마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시작으로 각각

‘호남 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 ‘마한 역사 문화권의 개발 방향’, ‘마한 역사 문화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한의 성립 시기, 마한 54개 소국의 분포, 마한의 소멸 시기, 마한 고분에 대해 분구묘가 가진 특성, 영산강 유역 대형 옹관묘의 성행과 소멸 배경, 영산강 유역 마한 석실묘와 백제 석실묘, 일본 북부 규슈 지역 석실묘와의 동이성, 마한 주거지의 특성, 마한 토기의 특성, 장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금동상투관 등 마한 문화의 특성과 마한 사회의 구조, 마한 역사 문화권의 개발 방향과 과제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 <담당 연구원 : 엄찬영, 나상필>

**시·도민과 인문의 가치 소통한
역사 강연회**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인문학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문학 및 인문 정신 진흥 강연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으로 지난 5월 24일 유명 유튜버 한영준 씨를 초청하여 ‘지리로 보는 호남학’이라는 주제로, 상대적으로 강연 기회가 많지 않은 도내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강사 한영준 씨는 ‘지리로 보는 호남학’이란 측면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호남해전사로 보는 임진왜란’이라는 주제의 생생한 역사 이야기를 전했다. 강연에서 한영준 강사는 국난을 신념으로 이겨낸 이순신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호남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호남 인문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담당 연구원 : 강동석>



한국학호남진흥원 소식
2023 상반기 행사

2022년 성과 창출 계획 이행 실적 평가 A등급

공공기관장 성과 계약서에 근거하여 2022년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 창출 계획 이행 실적 평가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A등급을 달성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국비 보조금 10억 증액 및 호남한국학 신규 사업 4건을 추진하며 호남한국학 진흥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비전 공유회 개최

7월 3일, 진흥원의 비전 및 미션 등 가치 체계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흥원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가치 체계를 공표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과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체결

4월 17일 한국학호남진흥원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각 기관 소장 기록 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류를 지속하며 지역학·한국학 자료의 학술 연구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광주비엔날레 현장 교육 실시

6월 14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 광주 비엔날레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며 창의력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 중립 실천 다짐식 개최

4월 24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적극적인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탄소 중립 실천 다짐식을 개최하고 다짐문을 낭독했다. 직원들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가입을 통해 탄소 중립 적극 동참을 결의했다.

광주천 가꾸기 사업 진행

진흥원은 상반기에 두 차례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여 담당 구역(56번 구역)의 제방, 둔치, 수로 내 쓰레기 수집 및 시설물 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2019년부터 꾸준히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으며 햇수로 5년 차를 맞았다.



함께하는 호남학 연구

최원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호남의 역사와 문화 토대로 융복합 연구 수행

호남 역사와 문화 연구 위해 설립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은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1963년 설립된 '호남문화연구소'에 뿌리를 두고, 2008년에 호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콘텐츠화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호남학연구단'을 통합하여 설립한 종합 연구 기관이다.

현재 호남학연구원은 연구원장과 6명의 전임교원, 9명의 연구교수, 5명의 특별연구원이 있으며, 운영위원과 일반연구원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학연구원은 문학, 역사, 철학, 문화학, 문화재학, 동아시아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각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학제간의 교류를 통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외 활발한 학술교류 수행

호남학연구원은 호남학의 발전과 거점 국립대학 지역학 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재)한국학호남진흥원, 5·18기념재단, 광주문화재단, 서남문화재단, 광주불교연합회 등 지역 내의 지역학 관련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등 타지역의 대학 내 연구기관과 정기적인 학술 교류 및 공동의 연구를 통해 국내외 지역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국외로는 중국 안휘대학 휘학연구센터와 일

본 오키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와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 학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연구 성과의 발간

호남학연구원은 현재 지역학 전문 학술지인 『호남학』(2023년 6월, 73집 발간)과 국내 유일 감성 인문학 전문 학술지 『감성연구』(2023년 6월, 26집)를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두 학술지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다. 지역학 연구 성과는 연구총서로 집대성하였다. 호남 문화에 대한 기층 탐구에서부터 일상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호남문화연구총서와 호남학자료총서(총 100여 권) 등으로 발간되었다.

국책 사업 수행 및 시민 강좌 운영

200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HK) 지원사업(2008~ 2018)과 인문학플러스(HK+)지원사업(2018~2025)을 수행하면서 한국인의 보편적인 감성과 분권 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 인문학의 연구를 통해 『감성총서』 30권과 『트랜스코컬 감성총서』 5권 등 감성 인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발간하고 있다.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호남학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학교와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감성인



문학교실(2013년~현재, 광주운남고등학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강독반(2020년~현재)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며 지역 내의 갈등 해결과 소통을 위한 '인문마을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공동체 삶에 대한 성찰과 지역 상생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호남학연구원은 지역학의 연구 기관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역학 연구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원 '호남학과'를 개설하여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개설한 호남학과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지역학 전문가 양성 대학원'을 기치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지역 문화와 문화 자원, 문학과 지역 서사, 분권과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있다. 그 결과 호남학과는 현재 41명의 석·박사 연구자가 학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석사 6명, 박사 2명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나주천연염색박물관, 나주학연구소, 5·18기념재단, 광산구 문화예술과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학 전문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권 대형거점연구소로 협동번역사업 수행



2010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중형거점연구소(2010.05.~2013.04.)로 선정되어, 연간 6책씩 문집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2013년에는 준대형거점연구소(2013.05.~2017.12.)로 승격되면서 연간 7책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2018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거점연구소(2018.01.~현재)로 승격되어, 연간 9책을 번역 발간하고 있다.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이 주관하고 있고, 전국적인 권역별거점연구소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산적한 미번역 고전 자료를 번역하고 고전의 대중화와 지역의 번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번역 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정한 '한국문집총간 우선번역대상서목'이다. 권역별 서목은 2019년까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수도권, 중부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되면서 전주대학교는 중부 호남권에 속한

서목을 선정하여 번역 출간하고 있다. 그동안 협동번역사업은 문집 번역본 총 64책, 교감·표점본 총 13책을 출간했다.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의 『존재집(存齋集)』은 전주대 협동번역사업에서 처음으로 번역 완간한 결과물로, 위백규는 조선 후기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과 함께 호남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꼽히며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존재집』에는 사서(四書) 등의 차의(筭義)와 『정현신보(政絃新譜)』 및 「만언봉사(萬言封事)」 등 사회 개혁론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폭넓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손재(遜齋) 박광일(朴光一)의 『손재집(遜齋集)』은 2015년에 완역하여 2018년에 출간하였다.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등과 다양한 학술적 주제 선학들의 학설에 대한 토론을 통해 박광일의 탁월한 학문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송사집(松沙集)』은 2019년에 완역하고 2021년 18책의

방대한 분량으로 완간되었다. 기우만은 할아버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계승한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항일 투쟁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당시 영호남 유림의 네트워크, 사상사, 사회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부터는 중부 호남권 성리학자와 관련된 문집을 중심으로 번역 사업을 진행 중이며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권상하의 문하에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로 유명하였던 윤봉구(尹鳳九)의 『병계집(屏溪集)』을 완역하고,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후손으로 성리학과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던 송내희(宋來熙)의 『금곡집(錦谷集)』과 송시열의 현손으로 가학(家學)을 계승한 송덕상(宋德相)의 『과암집(果菴集)』을 번역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송시열의 후손으로 한말의 문인이자 순국지사로 유명한 송병선(宋秉璿)의 『연재집』 4책이 추가로 출간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

호남 지역 한문고전 번역, 후속 세대 양성의 거점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산하연구소인 고전번역연구소는 2020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한문 고전 문헌의 정리·번역과 보급 및 고전 번역 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고 거점 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 관련성이 높은 문집을 번역하도록 하고 있다. 거점 연구소의 규모는 대형, 준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는데, 조선대학교 고전번역연구소는 소형 연구소로서 전임 연구원 3명이 연간 3책(책당 1,800매)을 번역한다. 본 연구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장(연구책임자): 이상원(국어국문학부 교수) / 자문위원: 홍기은(전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박종훈(국어국문학부 조교수), 엄태식(국어국문학부 조교수) / 전임연구원: 최이호, 이민호, 유중수 / 연구보조원: 배대웅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

번역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총 3단계, 포함 30년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호남권의 경우, 제1단계(2010~2019년) 사업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주관)과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협력)의 컨소시엄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컨소시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함에 따라, 제2단계 사업에서 호남권 거점 연구소를 새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에 본 연구소가 제2단계부터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전번역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정홍명(鄭弘溟)의 『기암집(畸庵集)』, 조희일(趙希逸)의 『죽음집(竹陰集)』, 김수증(金壽增)의 『곡운집(谷雲集)』을 번역하였으며, 현재 이상(李翔)의 『타우유고(打愚遺稿)』, 백광훈(白光勳)의 『옥봉집(玉峯集)』,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을 번역하고 있다. 또한 문집 완역 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고전강독클러스터에서는 사서(四書)와 『고문진보』 같은 한문 고전을 연 30회 이상 강독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는 명실상부한, 호남 지역 한문 고전 번역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한편, 고전 번역 후속 세대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원에는 학과간 협동과정으로 '고전번역학과' 석사·박사 과정이 있고,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에는 국내 최초로 '고전번역전공'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다. 고전번역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이 같은 교육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 지역에는 아직 번역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문헌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은 한문 고전 번역 및 후속 세대 양성과 관련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의 고전번역전공 이외에는 한문학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없고,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에 비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도 적으며, 대중의 관심 역시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바, 우리 지역 한문 고전의 정리·번역 및 고전 번역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한국학호남진흥원과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온빛’에 호남 국학 소통의 너른 자리를 펴드립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소식지 ‘온빛’은 호남학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해 호남 국학의 소식, 이야기, 진지한 의제들을 나누는 너른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호남 국학의 성과와 뉴스뿐 아니라 필요한 논의들도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께서 귀한 글을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신겠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온빛’
062-603-9622/suyakjai@hiks.or.kr



‘온빛’ 창간호를 함께 만든 사람들



오종일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강사, 전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한국공자학회 및 한국 동양철학연구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는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한국사상과 호남유학에 관한 많은 저술이 있다.



고석규
대중을 위한 한국사 서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목포대학교 총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도시사학회 및 호남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 목포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전경목
조선시대 고문서학 전공으로 일상생활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서지학회 부회장, 한국고문서학회 회장, 한국학대학원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김희태
전라남도청 문화재전문위원을 지냈고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목포대 사학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영진
조선시대 지성사와 호남유학사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광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 분야 책임연구위원, 위성천대학교 허버드대학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 중기 예학사상사』,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비판적 지식인 윤선도 : 사상과 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강욱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을 번역·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은대학당장과 (사)은대고전문학연구소 번역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건우
고문서 및 호남 유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현재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호남권 거점번역팀 연구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엄태석
한국 고전산문 및 한문 고전 번역을 전공하였다. 저서 및 역서로 『한국 전기소설 연구』, 『동선기 역주 및 전고 연구』, 『수몽집』 등이 있으며,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원중
전남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문화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증·기탁 안내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한 국학 자료가 아름답고 소중한 미래 유산으로 거듭납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보존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호남의 허브 기관으로서 고문서, 고서, 서화 등의 과학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중이나 개인이 기증·기탁한 자료는 분류, 목록, 보존 처리, 라벨링, 사진 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자료 보존과 함께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호남 지역의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대상 호남 지역과 관련된 문중, 개인, 기관 및 단체 소장 자료
(고문서, 고서, 유물, 서화, 근현대 자료, 향토사 자료 등)

기증·기탁 절차

- 1 기증·기탁 문의
- 2 현지 조사 및 보존 상태 확인
- 3 기증·기탁 협의 및 신청서 접수
- 4 자료 수집 및 수장고 이관
- 5 기증·기탁 심의
- 6 기증·기탁 협약 체결
- 7 기증·기탁식 개최

기증·기탁 예우 및 특전

기증·기탁식 개최 및 보관 증서·감사패 증정	소독 및 향온 향습 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보존	연구 자료 활용 및 호남국학종합DB 탑재
전시 도록 및 발간물 배부	각종 행사 초청	자료집 발간 및 학술 행사 개최 (다량 기탁)

기증·기탁 문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4층)
한국학호남진흥원
062-603-9630, 9633

호남 국학
알수록 깊어집니다
호남학 TV

